

한국이민학

2019년 제6권 제2호

한국이민학회

《한국이민학》은 사단법인 한국이민학회의 기관지로서 매년 6월과 12월에 연 2회 발간한다. 논문기고자격은 원칙적으로 한국이민학회의 회원으로 제한한다. 단, 비회원이 투고를 원할 때는 회원가입을 전제로 한다. 논문은 수시로 접수하며, 원고 및 집필 요강은 본지의 뒷부분에 수록되어 있다.

《한국이민학》의 정기구독을 원하는 개인과 단체는 다음 주소로 연락하면 된다.

☎ 54896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인문사회관 630호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내 한국이민학회 사무국

전화: (063) 270-3586 팩스: (063) 270-2921

전자우편: kimsa4info@gmail.com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imanet.org>

회원연회비

일반회원: 5만원

대학원생: 3만원

계좌번호: 기업은행 221-253841-04-011 (예금주: 사단법인 한국이민학회)

《한국이민학》 편집위원회

위원장 송영훈(편집위원장, 강원대학교)

위원 김철호(부편집위원장, 전북대학교) 박천웅(전북대학교)

강동우(한국노동연구원) 김대근(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영완(한국외국어대학교) 김유빈(한국노동연구원) 박효민(건국대학교)

문경희(창원대학교) 윤인진(고려대학교) 조영희(IOM이민정책연구원)

Erin Aeran Chung (Johns Hopkins University)

Gil-Soo Han (Monash University)

Jaeeun Kim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Nora Hui-Jung Kim (University of Mary Washington)

Timothy C. Lim (California State University, Los Angeles)

편집조교 엄승범(전북대학교)

한국이민학

2019년 제6권 제2호

연구논문

다문화가족 자녀의 일상생활:

가족의 사회계층과 가정불화를 중심으로 | 서영효 5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삶의 만족도에 대한 경로모형:

사회적 자본과 우울의 매개 효과 분석 | 인선영 35

부록

한국이민학회 정관 86

한국이민학회 회장 선출에 관한 규정 94

한국이민학회 연구윤리규정 96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규 100

《한국이민학》 발간지침 102

원고 제출 및 집필 요강 108

한국이민학회 2019-2020년 임원 명단 114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Migration

Vol.6 No.2 2019

Contents

ARTICLES

- Muticultural Family Children's Everyday Life: Focusing on Their Social Class and Family Trouble | Young-Hyo Seo
 - A Path Model of Life Satisfaction among Female Marriage Immigrants in Ethnicity: Social Capital and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 Seon-Young In
-

Korea International Migration Studies Association

연구논문

다문화가족 자녀의 일상생활: 가족의 사회계층과 가정불화를 중심으로

서영호 *

한국의 다문화가족은 한국 사회의 남녀성비의 불균형으로 인한 특히 농촌지역 남성들의 혼인 상대자 부족과 이주의 여성화 현상이 맞물려 발생한 현상이다. 이로 인해 도출된 한국의 다문화가족의 특성으로 낮은 경제적 지위, 부부 간의 준계급 관계를 꼽을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 고등학생 다문화가족 자녀 9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일상생활에 가족의 사회계층과 가정불화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다. 연구결과 가족의 사회계층은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사교육과 교육에 대한 관심의 측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가정불화는 경제문제와 연결되는 측면이 많으며,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가치관과 일상생활에 정서적으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주제어: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자녀, 일상생활, 빈곤, 가정불화

* 전북대학교 다문화학생근로장학멘토링사업단 사무국장, chinohako@hanmail.net. 주저자. 교신저자.

I. 서론

이주현상은 무척 다양하다. 종교적 자유를 찾아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한 청교도가 있는가 하면, 식민지 건설을 위해 끌려간 노예와 죄수의 강제이동, 독일 공장지대로 노동이주를 떠난 이주민, 전쟁이나 자연재해를 피해서 이동하는 난민,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밀입국을 하거나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국경을 넘게 되는 인심매매의 피해자들에 이르기까지 이주의 원인은 무척이나 다양하다. 오늘 날의 이주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 새로운 자유무역지역의 증가, 국가 간 자본의 이동과 초국가적인 기업들의 성장 등에 의해 가속화되고, 확대되고 있다(Samers, 2009). 최근에는 은퇴이주, 두뇌유출, 결혼중개업체에 의한 국제결혼과 같은 새로운 성격의 이주도 증가하고 있다(Castles and Miller, 2009).

이주의 증가와 이주현상의 차별화(the differentiation of migration)로 인해 수용국 내 이민자들의 모습 또한 다양하게 나타난다. 관광객이나 유학생, 단기취업자들과 같은 단기 이주자들에서 노동이주와 가족재결합(family reunification)을 통해 영주권을 얻어 살고 있는 사람들, 더 나아가 시민권을 획득하고 체류국의 국민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등 다양한 이민자들이 전 세계에 살고 있다. 다양한 성격의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민자사회통합정책은 많은 국가에서 중요한 정치적 이슈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국가의 존속에 필수적인 사안이기도 하다.

이민자 사회통합의 문제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 고전적 이민국가이며, 이민자들에게 우호적인 미국, 캐나다, 호주에서도 이민자와 관련된 종족적 소수자, 인종문제가 여전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는 것은 이민자 사회통합의 문제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이러한 원인은 과거와는 다른 이민자들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적합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Kymlicka, 1995).

이민자사회통합정책도 구분배치모형에서 동화모형, 다문화주의모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 통합정책들은 이민자들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기보다는 이민자들에 대한 수용국의 입장이다. 많은 국가들이 이민자들의 통합을 위해 정책과 지원 프로그램들을 실시하지만 이민자와 관련된 갈등과 문제들은 끊임 없이 계속되고 있다.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이민자집단을 대상으로 동화모형으로 접근한다거나, 주류 사회에 동화되고자 하는 집단들에게 다문화정책을 실시하는 것들은 이민자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다. 이민자들의 특성에 대한 이해뿐만이 아니라 이주과정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이민자들을 둘

러싼 환경과 수용국의 정책 변화는 이주현상, 이민송출국과 유입국, 이민자들 모두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정치적·사회적 문제의 원인은 국제이주를 역동적인 사회적 과정으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Castles and Miller, 2009).

한국의 상황은 어떠한가? 한국의 다문화현상은 최근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다문화현상에 대한 사회의 관심은 여성결혼이민자들로부터 시작되었다. 물론 외국인 노동자와 재외동포에 관한 관심과 논란도 있었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다문화현상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핵심적인 집단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이다. 여성결혼이민자들에 대한 관심의 시작은 이들에 대한 결혼중개업체와 가족 내 인권의 문제로부터 시작되어,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정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립으로 이어졌다. 현재 한국의 다문화현상에 대한 관심은 비단 여성결혼이민자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과 그 자녀들로 확대되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국제결혼은 2000년대 초반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5년 전체 혼인건수의 13.5%(42,356)를 차지하면서 최고치에 달했다가 2011년에는 전체 혼인건수의 9.0%(11,495)로 감소했다. 국내 취학 중인 다문화가족 자녀는 2005년 6,121명, 2007년에는 13,445명, 2011년에는 36,676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수가 늘면서 이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외국인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이 현저히 낮다보니 초등학교 단계부터 학습능력이 저조할 수밖에 없어 결국 그들의 고교 포기율이 현재 30%를 넘어섰고, 향후 이 수치는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나머지 70%도 상급학교로 진학만 했을 뿐 속사정은 별 차이가 없어요.”¹⁾와 같은 주장과 이에 따라, 다문화 학생이 많이 다니는 학교에는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가르칠 수 있는 다문화 특별학급이 편성되어야 한다.²⁾와 같은 다문화학급 및 다문화학교설립 이중 언어 교육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들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2012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여성가족부) 결과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언어사용은 큰 문제가 없으며 중도탈락률도 일부의 지적만큼 심각하지 않다. 한국의 다문화가족과 그 자녀들에 대한 걱정과 우려는 많으나, 이들 집단과 이들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는 무척 부족하다. 또한 이들이 어떻게 성장하게 될지에 대해서도 정확한 근거는 부족하다.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장래 모습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이 가능할 것이다. 한국 사회가 우려하는

1) “다문화 아이들 소외감 해소 대책 서둘러야.”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2100&key=20130326.22028204955>

2) “다문화 학생위한 ‘특별학급’ 설치.”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3102201071127158004>

것처럼 이들은 하나의 종족적 소수자로 계속해서 남을 것인가? 국적 상 한국인으로 시민권, 정치적 참여, 경제적 사회적 상승을 위한 기회에서는 배제되지 않지만 모국어와 문화를 유지하는 경향을 가진 종족 공동체와 유사한 성격의 베트남계 2세, 필리핀계 3세와 같은 이름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이들은 완전히 한국 사회에 동화되어 더 이상 다문화가족 자녀라는 이름이 사라지게 될 것인가?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성장하여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 인가하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한국의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실제 모습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실제 모습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족의 형성 배경과 특성을 함께 살펴봐야 할 것이다. 같은 다문화가족이라고 해도 미국, 유럽 출신의 외국인과의 한국인 사이의 국제결혼으로 형성된 가족과 동남아시아 출신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의 국제결혼으로 형성된 가족은 성격이 다르며, 다문화가족 자녀라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들과 중도입국자녀는 성격이 다르다. 이들을 하나의 범주로 접근하는 것은 정책적 오류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다문화가족 자녀의 대부분에 이들은 아시아 출신 여성과 한국인 남성간의 국제결혼에 의해 출생한 자녀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집단을 대상으로 이들의 특성과 실제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

1. 이주의 여성화와 한국의 여성결혼이민자의 특성

한국의 이주현상을 살펴보려면 전지구적인 차원에서 먼저 이해해야 한다(Portes et al., 1996). 국가 간 불평등은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생활수준을 찾아 계속 이동하게 만든다. 돌봄 노동, 가사노동, 성매매, 식당 및 호텔직원, 의류 및 전자제품조립라인 등 ‘전형적인 여성 직종’ 노동 시장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과거 남성노동자의 이주에 가족재결합의 형태로 부수적으로 또는 수동적으로 이주하던 것과 달리, 여성이 주체가 되어 이동하는 여성들의 이주가 1960년대 이후 크게 증가했다(Piper, 2003). 이주의 여성화로 불리는 이 현상은 선진국의 이민규제가 강화되면서 여성들이 국제결혼이라는 통로를 이용해 노동자로 이주하였다가 국제결혼을 하거나, 혹은 국제결혼 후 노동자가 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Piore and Ruben, 1979). 이주의 여성화는 송출

국과 수용국 모두에서 생겨나는 여성의 경제적 빈곤에 기인하며 제3세계 여성의 빈곤이 심화되면서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가족의 연계를 통한 금융자본, 문화자본, 사회자본의 제공과 함께 이주의 결정은 개인보다는 가족에 의해 결정되며, 이때 가족의 구성원 중 젊은이나 여성이 주로 이주를 하게 된다(Castles and Miller, 2009).

한국 사회의 여성결혼이민자의 증가 역시 전지구화가 수반하는 거대한 경제 질서와 ‘이주’라는 맥락에서 파악해야 한다(김현미, 2006). 한국의 국제결혼 증가는 다양한 교류와 문화접촉에서 비롯된 산물이 아니라 남아선호사상에 의한 성비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0년대 이후 각 지자체에서 주선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에서 비롯된 것이다. 농촌총각으로 대표되는 이들은 한국 내 결혼시장에서 불리한 위치, 즉 농촌지역, 임금수준, 직업지위가 낮았고, 한국 정부는 신부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에서 여성을 충원하려는 지방정부의 노력을 묵인하는 정책을 시행했다(설동훈 외, 2005).

한국의 국제결혼 가정 배우자의 직업 지위는 낮은 편이다. 한국인 남편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45%, 30%가 전문대 졸업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직업은 공장노동직, 음식점 등 서비스직, 농어민, 단순노무직이 62.1%이고, 전문경영직과 사무직은 37.9%, 월 근로소득은 100만원 미만이 39.1%, 100~199만원은 49.1%(설동훈 외, 2005). 최근의 조사인 2012년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도 국제결혼 가정 배우자의 직업지위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국제결혼가정 배우자의 취업률은 83%이며, 직업은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가 26.1%, 단순노무자가 18.4%,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가 18.3%다. 월평균 임금 수준은 100~150만원이 20.4%, 150~200만원 미만이 24.6%다.

다문화가족 여성들도 경제적으로 취약하다. 2012년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결혼이민자의 53.0%만 취업한 상태이며, 단순노무 종사자가 28.6%, 서비스 종사자가 23.9%,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가 13.6%다. 종사상 지위도 임시근로자가 35%, 상용근로자가 29.9%, 일용근로자가 18.9%다. 지난 3개월 간 월평균 임금 수준은 50만원 미만이 17.4%, 50~100만원 미만이 30.0%, 100~200만원 미만이 47.4%로 나타났다.

전 지구적 경제구조는 한국의 다문화가족의 형성과 성격을 규정할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의 부부관계에도 영향을 미쳐 마치 준계급 관계처럼 변화시켰다. 국제결혼중개업자에 의해 상업화된 결혼은 여성을 ‘소유물’로 인식하는 경향을 강화시키고 권력의 위계화를 만들어내 다양한 폭력 상황을 만들어 낸다. 국제결혼가정의 폭력 발생률

은 일반가정 폭력 발생률보다 다소 높게 나타난다. 보건복지부(2005)와 이주여성인권 센터(2008)의 조사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22% 정도가 폭력피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여가부(2007)의 조사에서는 최근 1년 간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당한 다문화가족의 부부가 47.7%로 한국인 가정의 부부폭력 발생률(40.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여성들의 경우 이혼 별거의 사유가 학대와 폭력이 21%로 가장 높았다(김승권, 2010). 가족갈등의 문제와 관련해서 한진수(2006)도 이주여성들이 한국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 없이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터득해 나가는 힘든 문화 학습과 적응의 과정을 거치는 반면, 주변 가족들은 일방적으로 한국문화에 빨리 동화되기를 바라고 있고, 문화적 차이를 개인의 성격으로 치부해버려 갈등 구조를 양산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의 다문화가족은 한국 사회의 남녀성비의 불균형으로 인한 특히 농촌지역 남성들의 혼인 상대자 부족과 이주의 여성화 현상이 맞물려 발생한 현상이다. 서로 다른 국가 출신자들 간의 국제결혼이므로 문화적인 측면, 혹은 인종적인 측면도 다문화가족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다문화가족의 국가적 배경이 일본, 중국, 조선족, 베트남 등 다양하기 때문에 한 가지 범주로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로 인해 도출된 한국의 다문화가족의 특성으로 낮은 경제적 지위, 부부 간의 준계급 관계를 꼽을 수 있겠다.

2.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선행연구

부부간의 관계, 가족의 특성에 자녀들은 영향을 받는다. 다문화가족 자녀들도 다문화가족의 특성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한국의 다문화가족이 증가한 시점이 2000년대 초반부터로,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연령이 낮고, 기존의 한국 다문화가족의 자녀에 대한 연구도 주로 이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한국의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에 대한 연구에서 가장 크게 지적되는 부분은 언어문제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심 중 큰 것이 바로 다문화가족 언어교육이다. 특히 교육학분야의 연구가 두드러지는데, 이 연구 대상들은 대체로 연령대가 낮은 다문화가족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12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는 이와는 반대되는 결과를 보여준다. 이 조사에서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주관적인 한국어 실력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다문화가족 자녀들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신들의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결

혼이민자의 언어 미숙이 자녀에게 전달된다는 입장은 다소 무리가 있다. 대부분의 2, 3세대 이민자들은 부모세대보다 언어습득은 어렵지 않으며 훨씬 더 잘 구사한다.³⁾ 한국어 구사 능력의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집단은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다문화가족 자녀가 아닌 중도입국자녀와 체류외국인가족이나 외국인노동자가족의 자녀들이다.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학교생활과 관련해서는 한국어가 미숙한 외국인노동자가정 자녀들은 친구를 사귀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절반 이상을 차별을 당한다고 느끼고 있다(설동훈 외, 2003). 오만석(2011)은 경기도 여섯 가정의 다문화가족 부모와의 면접조사로 다문화가족의 교육 현실에 대해서 접근했고, 가정의 안정과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 등이 중요함을 지적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다문화가족 자녀들에게도 언어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언어 구사능력과는 다른 차원으로 단순한 언어습득능력보다는 언어 활용의 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언어의 문제는 단순히 그 언어를 구사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존재한다. 라루(2003)는 미국의 중산층과 노동자 또는 빈곤계층의 재생산 문제에서 양육방식을 지적하고 있다. 미국의 중산층은 자녀양육에 집중양육방식이라는 전략을 채택하는 반면, 노동자, 빈곤계층은 자유방임방식을 취한다. 양육방식의 하나로 라루(Annette Lareau, 2012)는 언어의 사용을 지적하고 있다. 라루에 따르면 미국의 노동자, 빈곤계층은 언어의 사용에서 단순한 의사전달과 명령, 감정표현과 같은 도구적인 측면으로만 사용하고, 중산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중산층의 언어 사용은 그들의 집중양육방식이라는 자녀양육방식의 한 측면에서 협상의 방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고 성인들과의 관계에서도 1대1의 관계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며, 명령을 내릴 때도 협상의 방식을 사용한다거나 어떤 사건에 대한 토론을 유도하거나 교육적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부르디외(Pierre Bourdieu, 1995)는 계급의 문제에서 언어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다. 언어는 아비투스로서 체화된 문화자본의 하나로 계급에 따라 쓰는 언어활용 방식, 표준어를 사용하느냐, 또는 언어의 뉘앙스 및 발음 등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통해서 상징적 가치와 이윤을 얻는다.

이외 다문화가족 자녀들에 대한 연구로 김순규(2011)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에게 불충분한 교육지원, 차별경험, 또래관계 문제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이 스트레스가 사회적응을 저해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전경숙과 송민경(2011)은 경기도 지역 다문화가

3) 본 연구자의 현지조사를 통해서도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한국어 실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다.

족 전 3,29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일본출신 어머니를 둔 다문화가족 학생이 한국생활적응에 타국가 출신 어머니를 둔 다문화가족 학생들에 비해 어려움이 없었으며, 필리핀과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출신 어머니를 둔 다문화가족 자녀들은 학교생활보다 가정생활에서 갈등이 없다는 등의 연구결과를 통해 출신국적에 따른 한국생활 적응의 차이가 있음을 밝혀냈다. 현재 한국 사회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다문화가족 자녀와는 성격이 다르지만 한국의 이민 후속세대들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미군과 한국인 여성 간의 혼혈인에 대한 연구가 있다. 14세~19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혼혈 청소년, 결혼가정 청소년, 일반가정 청소년으로 구분하여 정체성에 대해서 조사했다. 혼혈 청소년은 결혼가정 청소년과 큰 차이가 없으며 혼혈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혼혈’이라는 요인보다 결혼가정이라는 ‘가정 환경’요인이라는 것, 혼혈 청소년 중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자아정체감 형성이 낮은 수준이라는 것 등을 밝혀냈다(김미혜, 1982). 이 연구에서는 또한 인종과 관련된 측면에 대해서도 지적하는데 외모가 한국인과 차이가 나지 않는 청소년들이 외모가 차이가 나는 학생들보다 오히려 자아정체감이 낮다는 것이다. ‘주둔지 혼혈인’⁴⁾에 대한 연구에서 2세에 대한 간략한 언급에서는 자신의 자녀들이 자신보다 덜 혼혈로 보이는 것을 혼혈인에 대한 차별이 나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그와 함께 자신들의 상황도 과거보다는 나아졌다는 평가와 함께 그 원인으로 사회적 인식과 처우가 나아졌다고 말한다(남영호, 2008).

연구대상과 시기 등에 따라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특성은 조금씩 다르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는 한국인과 외국인과의 결혼에 의해 형성된 가족을 ‘다문화가족’으로 정의하며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 외국인 남성과 한국인 여성에 의한 가족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다문화가족의 대부분은 한국인 남성과 아시아출신 외국인 여성 간의 결혼에 의한 가족이 대부분 위의 논의에 해당하는 집단이라고 볼 수 있으며, 본 연구의 다문화가족은 이에 해당하는 가족으로 한정하여 체류외국인 또는 외국인 노동자의 자녀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리고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다문화가족 자녀와는 성격이 다른 중도입국자녀도 포함하지 않는다.

4) ‘주둔지 혼혈인’이란 미군병사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혼혈인’을 가리킨다. 이들 ‘혼혈인’의 단체인 국제가족한국총연합의 배기철 회장은 자신들을 ‘주둔지 혼혈인’으로 불러 달라고 했다.(남영호, 2008에서 재인용)

III. 연구방법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일상과 특징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질적방법을 사용하여 다문화가족 자녀들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대상자는 전북대학교 다문화멘토링을 실시하고 있는 전라북도 내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자는 현재 교육과학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주관하는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의 실무를 맡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2011년부터 실시되었다. 2011년에는 초등학생, 중학생만이 대상이었고, 2012년부터 고등학생도 포함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다문화멘토링 프로그램의 수혜대상은 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족 자녀와 탈북학생으로 한정되어 있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들은 제외된다.

본 연구에서 다문화가족 자녀란 한국인 남성과 아시아 여성 간의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로 한정한다. 이러한 아이들은 모두 유사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 다만 중도입국 자녀는 제외한다. 중도입국자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자란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은 당연한 사실이며,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자란 아이들과는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한국의 다문화가족의 특성으로 경제적인 측면, 즉 빈곤과 상업화된 결혼으로 인한 권력의 위계화에 따른 가정불화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이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파악하고자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일상을 조사하고자 했다. ‘인종’이나 ‘문화(언어)’에 주목하기보다는 학생들의 일상의 생활모습들,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수업이 끝난 후의 활동들, 학원에 가는지, 다니지 않으면 공부를 어떻게 하며, 친구들과는 어떻게 지내는지와 같은 일상적인 모습을 살펴본다. ‘인종’이나 ‘문화(언어)’의 영향력이 크다면, 일상적인 모습들에 전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하루 일과, 학원을 다니는지, 다녀본 적이 있는지, 다니지 않으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학교에서 친한 친구는 몇 명인지와 같이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가지고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본 면접조사를 진행하기 전부터 현장 모니터링을 나가거나, 멘토들의 상담 요청으로 멘티 학생들을 만나서 예비 조사를 해본 결과, 초등학생들은 나이가 어려서 가족과 자신에 대한 관련된 객관적인 사실들, 부모님의 직업이나 친척이 얼마나 있고, 어디에 사는지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같은 내용에 대해서 멘토와 멘티의 대답이 상반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학원을 다니지 않는 이유라든지, 학교에서의 문제, 가족 내의 문제 등에 대해서도 잘 모르거나 정

확히 표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오히려 해당 다문화가족 자녀의 멘토들과의 면접이 더욱 풍부한 내용을 전달해주는 편이었으나 이는 멘토와 멘티가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멘토링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초등학생은 제외하고, 중학생과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했다. 2014년도 전체 기간 동안 전북대학교 다문화 멘토링 대상자 중에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모두 60여명으로 1학기 신청자가 30여명, 2학기 신청자 수가 30여명 이다. 방학시작 후 일정이나 전학과 같은 사유로 멘토-멘티 매칭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중도 포기하는 학생들도 있어서 숫자는 유동적이다. 멘토링을 실시하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전체에 대해서 면접조사를 실시하고자 했으나 30여 명 중 멘토링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조사 기간 동안 40시간 이하로 멘토링을 한 학생들은 멘토-멘티 간의 친분관계가 적어서 제외하였다. 예비조사 시 일상적인 면접조사내용이었으나 멘토와 친분관계가 적은 학생들은 만족할 만한 조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멘토링은 1일 최대 4시간으로 전주지역은 평균 1일 2~3시간, 전주 이외지역은 평균 1일 3~4시간으로 10회 멘토링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외 면접조사를 거부한 학생, 면접조사 기간 중 전학을 가거나 특별한 사유로 멘토링을 중단한 학생, 면접내용이 불성실하거나 기타 사유로 활용할 수 없는 학생을 제외하여 9명의 면접 내용을 분석한다. 면접조사 후 추가 질문이나 확인 사항은 전화를 이용하였고, 담당 멘토에게도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멘티와의 설문조사 내용 중 사실 확인이 필요하거나 추가적인 내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받았다. 대체로 멘티들의 면접내용과 큰 차이가 없어 멘토와의 면접조사 내용은 참고자료로 사용한다. 면접조사는 2014년 8월 14일부터 9월 20일까지 진행되었으며, 멘토, 멘티 총 24건의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면접 조사자의 기본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표 1〉 면접대상 학생의 기본 정보

연번	이름(가명)	성별	학년	지역	가족관계	어머니 출신국	부모 직업	사회계층
1	고혜경	여	중1	전주시 도시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	필리핀	포크레인기사 전주시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중중
2	태도현	남	중2	완주군 고산면 농촌	아버지, 어머니	중국 (조선족)	대형마트직원 식당직원	하하
3	김중섭	남	중3	완주군 용진면 농촌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	중국 (조선족)	없음 미용실직원	하하
4	한일후	남	중3	완주군 용진면 농촌	어머니, 여동생	필리핀	- 이주여성긴급센터 통역	하중
5	김민아	여	중3	완주군 고산면 농촌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2	일본	농사 방과후학교 강사	하중
6	안혜영	여	중3	완주군 구이면 농촌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언니(쌍둥이), 남동생	태국	농사 상점 점원	중하
7	김경옥	여	고1	남원시 농촌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	일본	농사 농사	중상
8	이찬미	여	고1	남원시 도시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	일본	회사원 공장직원	중하
9	최주운	남	고2	남원시 도시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	중국 (조선족)	공장직원 가게점원	중상

IV.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일상생활과 사회계층

면접대상 학생들의 경제 수준은 <표 1>과 같다. 자신들 가정의 사회계층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평가에 따랐다. 담당 대학생 멘토의 의견이나 연구자가 방문해 본 일부 학생들의 가정상황으로 파악해 볼 때, 본인들의 평가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경제적으로 크게 문제가 될 만한 가족은 세 가족으로, 한일후, 김중섭, 태도현 세 학생의 가족이다.

한일후 학생의 가족은 한부모가정으로 어머니는 어린이집에서 식당보조일을 하다가, 3년 전부터 이주여성긴급센터에서 필리핀어 통역으로 일하고 있다. 수입은 최저임금 수준이며 기초생활수급자였으나 최근에는 한부모가정 지원만 받을 수 있는 상태다.

김중섭 학생의 아버지는 특별한 직업이 없고, 1톤 용달차로 고물을 수입해서 팔거나 동네 일을 돕는다. 어머니는 인근의 미용실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다. 미용관련 기술은 한국에서 지인들을 통해서 배웠다. 어머니는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9시

에 출근해서 저녁 늦게(9시~10시) 들어온다.

태도현 학생의 가족은 과거에는 경제적으로 지금처럼 어렵지는 않았는데, 아버지가 천식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치료비용이 많이 들고, 일을 하지 못해서 파산신청을 했다. 이후 인력사무소를 통해 일용직 근로를 해왔으나 2012년에 고관절이 안 좋아 수술을 한 후 무거운 것을 들 수가 없어 일용직 근로도 나갈 수가 없게 되었다. 친구의 일거리를 근근히 도와주다가 최근 대형 마트에 취직하여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어머니는 음식점에서 일을 하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다. 태도현 학생의 말에 의하면 어머니는 ‘옛날부터 돈쓰는 걸 좋아해가지고’ 여러 가지 물건들을 가족과 상의 없이 구매해서 더 힘든 상태라고 한다.

이외의 면접자 가족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지만 위 가족처럼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상태는 아니다.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농사를 짓는 집들이 많고,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주로 단순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사회계층이 좋다고 볼 수는 없다.

1.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일상생활과 학교생활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일과는 <표 2>와 같다. 대부분은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일어나 아침을 먹고 8시 반까지 등교해서 학교에서 시간을 보낸다.

고혜경 학생은 끝나면 바로 집으로 와서 혼자 밥을 먹는다. 학원이 다 끝나고 집에 와서 저녁을 먹어도 되지만 고혜경 학생은 요리하는 것을 좋아해서 혼자 저녁을 먹는다. 저녁을 먹고 바로 영어 학원에 간다. 영어 학원이 끝나면 바로 수학학원에 간다. 주말에는 친구들과 근처 맛집을 찾아다니고, 공부에 관심이 많아 이외 시간에는 주로 공부를 한다.

태도현 학생은 학교가 끝나면 1시간 방과 후 기초반을 듣는다. 성적이 낮아서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수업이다. 이후 태도현 학생은 친구들과 편의점 같은 곳에서 놀거나, 학교 근처 할머니 집에 가서 저녁을 먹을 때까지 놀기도 하지만 학교가 끝나면 곧장 집으로 돌아온다. 집은 학교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라서 집 주위에 몇 가구 없다. 또래 친구들도 집주위에는 없다. 차비도 없고, 귀찮아서 친구들과 잘 안 만난다. 주말에도 차비가 없어서 집에 있는 날이 대부분이다.

김중섭 학생은 학교가 끝나면 바로 집으로 온다. 같은 학교 친구들은 학교에서 놀거나 지역아동센터에 간다. 김중섭 학생의 동생(초등학교6학년)도 방과 후 지역아동

센터에 간다. 김중섭 학생도 지역아동센터에 갈 수 있지만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 집에 와서 휴대폰으로 게임만 한다. 주말에는 근처 작은 집에 가서 친척동생들과 논다.

한일후 학생은 김중섭 학생과 같은 학교에 다닌다. 학교가 끝나면 친구들과 학교 운동장에서 놀거나 PC방에 가서 논다. 학교 주변에는 PC방도 없고, 먹거리도 없어서 가까운 전주로 나온다.⁵⁾ 방과 후 프로그램에 자신이 관심 있는 음악, 특히 힙합, 비보이 같은 것이 있으면 참여한다. 남는 시간은 주로 친구들과 보낸다. 집에 들어가면 휴대폰으로 음악을 듣거나 친구들과 카카오톡을 주고 받고, SNS를 주로 이용한다. 얼마 전 ‘올레TV’를 끊어서 ‘공중파는 재미가 없어서’, 그리고 좋아하는 힙합오디션 프로그램이 안 나와서 TV는 잘 보지 않는다. 어머니가 업무용으로 쓰는 노트북은 있지만 게임을 하기에는 성능이 좋지 않아 집에서는 컴퓨터는 잘 하지 않는다. 멘토링을 할 때는 전주로 나온다. 한일후 학생의 멘토는 차가 있어서 한일후 학생의 학교근처에서 멘토링을 할 수 있지만, 한일후 학생은 본인이 전북대학교로 와서 멘토링 받는 것을 좋아한다. 주말에는 집에서 어머니와 시간을 보낸다.

김민아 학생은 중학교 3학년이라서 1시간 늦게 끝난다. 학교에서 집이 무척 멀어서 등하교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학원을 다니지 않기 때문에 곧장 집으로 온다. 집에 오면 저녁을 먹고 주로 EBS를 보며 공부를 한다. 멘토 말에 의하면 집이 무척 외진 곳이라서 한 번 들어가면 나오기도 쉽지 않다. 멘토링을 주로 주말에 고산 읍내에서 하며, 주말에는 집에서 공부를 하거나 친구들과 고산 도서관에 가서 공부한다. 한 달에 한 두 번은 친구들과 전주 시내(객사)에 나와서 노래방에 가고 먹을 것을 먹는다.

5) 전주시 변두리 지역으로 걸어서 올 수 있는 거리라, 친구들과 걸어온다.

<표 2> 면접자 중 중학생들의 하루 일과

	고혜경	태도현	김중섭	한일후	김민아	안혜영
6						
7	아침, 등교	아침, 등교	아침, 등교	아침, 등교	아침, 등교	아침, 등교
8						
9						
10						
11						
12	학교	학교	학교	학교		학교
13					학교	
14						
15						
16						
17	집에서 저녁	방과후 수업 기초반(필수)				
18				친구들과 PC방		지역아동센터(공부, 미술활동)
19	영어학원		집에 도착 저녁 식사 휴대폰(게임), 자는 시간은 일정하지 않음 새벽까지 안자는 경우가 많음			
20	수학학원	집에 도착 저녁 식사 컴퓨터(음악)		집에 도착 저녁 식사 휴대폰(음악, 카카오톡)	집에 도착 EBS, 공부	
21						집에 도착 저녁 식사 TV시청
22	집에 도착 TV 시청					
23						
24	취침	취침		취침	취침	취침

<표 3> 면접자 중 고등학생들의 하루 일과

	김경옥	이찬미	최주운
6	기상, 아침	기상, 아침	기상, 아침
7			
8			
9			
10			
11	학교	학교	
12			
13			
14			
15			
16			학교
17			
18			
19			
20	시내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냄	집에 도착 저녁 식사 인터넷 강의, 취침	
21			
22			
23	집에 도착, 취침		취침
24			

안혜영 학생은 학교가 끝나면 같은 학교에 다니는 쌍둥이 언니와 1살 어린 남동생과 지역 아동센터에서 시간을 보낸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라 중학생인 안혜영 학생은 자유 시간이 많아 주로 그림과 관련된 미술활동을 주로 한다. 남동생이 컴퓨터를 독점해서 게임을 하기 때문에 집에 오면 TV를 본다. 주말에는 언니, 동생, 엄마와 전주에는 교회(통일교)에 온다. 교회에 올 때 차비를 자기가 부담해야 해서 교회 가는 것을 싫어한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일상은 <표 3>과 같다. 김경옥 학생은 공부에 관심이 크게 없다. 야간 자율학습은 받지 않는다. 집은 학교(남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마을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를 타고 다닌다. 통학버스는 저녁 10시에 남원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자율학습을 받지 않는 김경옥 학생은 6시에 학교가 끝나면 친구들과 남원 시내에서 친구들과 저녁을 먹고 노래방에 가거나 쇼핑을 하거나 커피숍에서 시간을 보낸다. 주말에는 남자 친구와 시간을 보냈는데 최근에 헤어진 후 집한 수상스키에 흥미를 느껴 수상스키를 타러 간다.

이찬미 학생은 최근까지 학원에 다녔으나 인터넷 강의를 듣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고 생각해서 학교가 끝나면 바로 집으로 와서 저녁을 먹고 공부를 한다. 주말에는 친구들과 도서관에 간다. 최주은 학생은 기숙형 학교라서 하루 종일 학교에서 보낸다.⁶⁾ 야간 자율학습시간에 학원에 다닐 수는 있지만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공부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해서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받는다. 주말에는 집에 와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다 친구들과 주로 PC방에 간다.

일상생활에서 두드러진 점은 없다. 친구들과 PC방, 노래방, 맛집을 찾아 가기도 하고, 이성 친구를 만나고 헤어지고, 학교 친구들과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다. 다문화가족의 경제적인 측면도 일상생활과 학교생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소비와 관련해서는 면접자들이 가장 많이 지출하는 항목은 군것질과 차비정도다. 면접자들의 용돈 수준은 교통비를 포함하여 한 달에 10만원 미만으로 많은 편은 아니다. 대부분 용돈이 적다고는 생각하지만 특별히 쓸 곳도 없다고 한다. 나이에 외모에 관심이 늘어가는 사춘기 청소년들에게 누구나 용돈은 부족하겠지만 면접 학생들은 가정의 경제적 상황에 맞춰 소비 욕구를 조절하는 것으로 보인다.

용돈이 부족하다고 하는 경우는 특별한 취미생활을 하는 경우인데, 미술에 관심이 많은 안혜영 학생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태블릿 컴퓨터와 마우스⁷⁾를 부모님께 사달라고 했고, 성적이 좋으면 사주겠다는 약속을 받아, 현재 소유하고 있다. 김경옥 학생은 수상스키와 레저 활동에 관심이 많아 토요일에는 집안 농사일을 도와 추가로 용돈을 번다.

학교생활 및 친구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학생은 김중섭 학생이다. 김중섭 학생은 공부에도 전혀 관심이 없고, 친구들과도 어울리지 않는다. 학교 폭력을 당한 경험도 있다.

제가 그냥 학교생활 어쩌냐 하면서 그런 얘기 좀 자주해가지고 물어보다 보니까 요새는 학교폭력 없냐? 요새 신고하고 그러지 않냐 제가 한 번 신고를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막 아까도 한 한반에 20명? 이렇게 두 학급 있다고 뭐 3학년, 3학년 형들까지 다 막 다 아는 사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자기 막 맞고 그랬었다고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신고를 했는데도 먹히지도 않고 하면서 힘들었다고 지금은 예 그냥 친구가 많이 없을 뿐 인거 같아요.(김중섭 멘토)

같은 학교, 같은 학년인 한일후 학생의 말에 의하면, 현재는 학교폭력 수준의 문제

6) 집과 학교거리가 무척 가깝다.

7) 미술 및 영상작업 시 사용하는 태블릿 마우스

는 없지만,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한다고 한다. 두 학생이 다니는 학교는 한 학년에 2반으로 학급당 20여명 정도로 전체 학생 수는 60여명이고 이중 다문화학생은 10여명이다. 농촌지역 학교라 학생들끼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대부분 알던 사이들이라 다들 사이좋게 지낸다고 한다. 한일후 학생은 자신과 같은 다문화가족 출신인 김중섭 학생을 도와주려고 친구들과 같이 방과 후에 PC방에 가자거나, 축구를 하자거나 몇 차례 시도를 했지만, 김중섭 학생이 의지가 없었다고 한다.

애들이 애한테 중섭이한테 장난을 치면 좀 심하게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모르겠어요 장난세기가 좀 지나쳤는데 제가 그거 받아들여서 그런 거지 중섭이는 좀 힘들거예요 좀 멘탈을 가져야 돼요 이걸 장난을 너무 힘들어해가지고...그러니까 우리끼리 하는 장난들이세기가 점점 높아져요 지금도 높아지고 있는데 동해는 지금 그걸 감당 못하니까 그러니까 좀 처음에는 이렇게 툭툭치는 식이었는데 지금은 막 막 격해지니까 막 격하게 친해지잖아요 욕도 좀 험하고, 험하게 받으면 또 험하게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노는데 또 몸 갖고 놀잖아요 말뚝박기도 하고, 몸 때우는 일도 하는데요. 앗튼 그런 식으로 노는데 중섭이한테 조금 힘든 것 같아요.(한일후)

면접자들 중 피부색이 차이가 나는 학생은 한일후 학생과 안혜경 학생이다. 한일후 학생은 초등학교 3~4학년 사이에 농촌에서 전주로 전학을 와서 학교를 다닌 시기동안에 잠시 까무잡잡한 피부로 놀림을 받았다.

음 뭐랄까 그대는 나이가 3,4학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인데 그때 그냥 야가 나랑 많이 친해질려고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거 같아요. 뭐 악의적인 것은 없고, 장난?... (중략)... 그런데 애들이 그거가지고 뭐라고 하며는요 일단 저도 기분 나쁘니까 값아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외모나 생김새 아니면 다 찢러봐요. 너는 어때어떠하잖아 아무튼 털털하게 다 털면 아 미안해 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한일우)

이런 일은 학년이 바뀌는 학기 초에만 있었고, 조금 지나면 사라져서 친해지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보인다. 현재도 학교 친구들과 잘 지내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여자 친구도 사귀며 학교생활에서는 어려움이 없다. 피부색이 차이가 나는 안혜영 학생도 주변 친구들에게 외모로 놀림을 받은 적은 없다.

김중섭 학생의 어머니는 중국 조선족으로 필리핀 어머니를 둔 한일후 학생과는 달

리 외모의 차이는 없지만 오히려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쪽은 김중섭 학생이다. 특별히 외모가 학교생활이나 일상생활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는 모습은 보기 어렵다.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학교생활에서 외모와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는 지역 간의 차이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지역 간의 문제는 다문화가족을 포함한 한국 사회의 모든 가족에 해당한다. 하지만 다문화가족의 경우, 그들이 다문화가족인지 아닌지에 대한 인지여부에서 지역별 차이가 있다. 농촌지역, 소도시에서는 다문화가족 자녀라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대도시의 경우에는 다르다. 다문화가족 출신 자녀들은 자신이 다문화인지 아닌지를 밝히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또 굳이 밝힐 필요도 없고, 다문화라는 성격과 무관하게 자신들을 바라봐 주길 원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신이 다문화가족 출신이라는 것을 알리지 않아도 알고 있는 지역에 사는 것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 사는 것의 차이는 크다. 농촌지역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다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대도시로 다니게 된 학생들의 경우, 처음 학교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한일후 학생의 경우도 농촌지역 초등학교를 다닐 때에는 학교 친구들에게 외모로 놀림을 받은 적은 없었지만, 대도시의 학교에서는 놀림을 받은 경험이 있다.

2. 사회계층과 교육

가족의 사회계층이 자녀에게 영향을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공교육인 학교보다는 직접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사교육 분야다.

중학교에 다니는 면접자들 중 방과 후 학원에 다니는 학생은 고혜경 학생 한 명뿐이다. 과거 학원에 다녀본 경험은 다음과 같은데 태도현 학생은 경제적인 상황이 지금처럼 나쁘지 않았던 초등학교 저학년 때 영어학원을 잠시 다녔고, 5~6학년 때는 1년 이상 학원에 다녔다. 김중섭 학생은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때 영어학원을 1~2개월 정도 다녔지만 싫증을 느끼고 학원을 그만 두었고 지역에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지만 하고 있다. 한일후 학생은 학원은 다녀본 적이 없고, 과외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5~6학년 때 한 번 받아 본적이 있다. 이 세 학생은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형편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부에 관심이 없는 편이라 학원이나 지역아동센터에 가는 것도 싫어한다.

<표 4> 면접자들의 성적과 부모님의 관심과 태도

이름	학 년	지역	성 적	관 심	부모님의 태도	
					아버지	어머니
1 고혜경	중1	전주시	중 상	상	크게 관심 없음	관심도 있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지만 공부에 크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음
2 태도현	중2	완주군 (농촌)	하 하	하	전혀 관심 없음	전혀 관심 없음
3 김중섭	중3	완주군 (농촌)	하 하	하	전혀 관심 없음	전혀 관심 없음
4 한일후	중3	완주군 (농촌)	하 상	하	-	가정불화가 있었지만 밝게 자란 것만으로도 만족하여 성적에 크게 관심없음
5 김민아	중3	완주군 (농촌)	중 상	상	크게 관심 없음 인문계는 가라고 하지만 학원은 안 보내 줌	크게 관심 없음
6 안혜영	중3	완주군 (농촌)	상 하	중	전혀 관심 없음	크게 관심 없음
7 김경옥	고1	남원시 (농촌)	하 중	하	전혀 관심 없음 (실업계가라고 추천)	아버지 뜻에 따름
8 이찬미	고1	남원시 (도시)	중 상	상	전혀 관심 없음 (실업계가라고 추천)	크게 관심 없음
9 최주운	고2	남원시 (도시)	상 중	상	크게 관심 없음	관심도 있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지만 공부에 크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음

김민아 학생은 초등학교 때는 학원을 다니지 않았다. 이유는 집의 위치가 너무 외진 곳이라 근처에 학원이 없어서이고, 중학생이 되어 읍으로 학교를 다니게 되어 1~2개월씩 단기간으로 2~3번 정도 다녔으나 현재는 멘토링을 하느라 학원을 안다닌다. 학원과 달리 멘토링은 1주일에 1~2번 많으면 2~3회로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아버지께서는 멘토링으로 대체하라고 하며 학원을 보내 주지 않는다.

다니고 싶은데 안다니게 해요 아빠가요. 돈 든다고 경제적인 사정이 안 좋은 것 같아요....영어학원이나 그런 얘기 해본적도 있는데 그냥 EBS봐라.(김민아)

안혜영 학생은 학습관련 학원을 다닌 적은 없고, 미술학원을 잠깐 다녔다. 그 이유는 초등학교 6학년에 미술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았는데 그때 부상으로 미술학원 6개월 수강권을 받아서 다녔다고 한다. 미술학원을 더 다니고 싶었지만 부모님은 허락하지 않았고, 지역아동센터에서 미술위주로 활동을 하고 있다. 고등학생인 최주은 학생과 이찬미 학생은 공부에 관심이 많아서 어렸을 때부터 여러 가지 학원을 다녔다. 두 학생은 인터넷 강의를 듣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학원은 다니지 않는다. 김경옥 학생은 특별히 공부에 관심이 없어서 어렸을 때 피아노학원을 2~3년 다닌 것이 전부이고, 현재는 주말에 킥복싱학원만 다닌다.⁸⁾

비다문화가족 자녀와 면접자들 간에 학원에 다니는 정도를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학원에 다니는 비율이 적은 편이다. 면접자들의 같은 학교 친구들의 절반 정도는 학원에 다닌다.

자녀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녀의 진로와 진학에 대한 관심도 적어진다. 고등학교 진학이나 장래 문제는 무척 중요한 문제지만 부모님들은 여기에 대해서도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전혀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라루의 자유방임방식처럼 크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편으로, 인문계보다 실업계를 추천하거나(김경옥, 이찬미), 통학이 편한 학교를 권한다.

전통문화고등학교하고 전주예술고등학교하고 거기 두 개가 여기서 제일 가깝긴 한데 전통문화고등학교는 내신이 좀 많이 좋아야 가고 예술고등학교는 엄마가 가지 말라고 해요. 돈 많이 든다고...지금은 아니 그냥 솔직히 미술쪽으로 갈려고도 생각은 해봤는데 뭐지 엄마가 그런 준비하는 미술 예술 그런데는 안됐다고 하니까 미술쪽으로 가려거든 그냥 학교 다니는 틈틈이 그림 연습했다가 그냥 대학교 들어갔다가 미술쪽 과로.(안혜영)

진로문제를 부모님과 상의하기가 쉽지 않다. 아버지들은 자녀의 성적과 진로에 크게 관심이 없는 편이고, 어머니들은 아버지들보다는 관심이 있는 편이지만 한국의 교육환경을 잘 알지 못해서 특별한 조언을 해주지 못한다. 진로에 대해서는 대부분 학교 선생님과 상의하거나 친구들과 상의한다.

8) 주말에 집안 일을 돕고 번 돈으로 다닌다.

V. 가정불화가 자녀에게 끼치는 영향

면접자들은 부모님과 대화는 많지 않은 편이다. 우선 부모님들의 퇴근 시간도 늦고 휴일이 평일인 경우가 많아 주말에도 함께 시간을 보내기 어렵다. 대부분 아버지와는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 성장할수록 어머니와는 대화하기가 어려워지는데 학교나 일상에서 있었던 일들을 말하기에 어머니와 큰 공감대가 없고 세세한 이야기를 나누기가 어려워져서 깊은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다. 대화는 모두 한국어로 한다. 김민아 학생은 일본 애니메이션에 관심을 가지면서 어머니에게 일본어를 가르쳐 달라고 해서 시간을 정해서 배웠는데 지금은 다른 공부도 해야 하고 어려워서 필요할 때만 물어본다. 안혜영 학생의 어머니는 중학교 때부터 태국어를 가르쳤는데 있지만 태국어를 배우는 것보다는 노는 것이 좋아서 열심히 하지 않았고, 어머니가 바빠서 시간을 정해서 배울 수는 없는 상황이다. 어머니는 시간이 나면 태국어 배울래라며 태국어 가르치기를 종종 시도한다. 안혜영 학생은 관심은 있지만 꾸준히 배우지 않다 보니 실력이 늘지는 않지만 읽는 것과 기초적인 인사정도는 할 수 있다.

가족 간의 관계에 크게 문제가 있는 면접자들은 태도현, 김중섭, 한일우 학생이고, 다른 가족들은 대화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원만한 가족관계를 이루고 있다.

태도현 학생의 가족은 아버지의 건강문제로 경제사정이 나빠지면서 가족 간의 싸움이 잦아졌다.

갖고 맨날 싸워요. 치고 박고 뭐 때려 부수고 때리고...용돈 아예 안 받아요. 차비만 줘요. 그것도 많이 싸워요. 쌍욕을 막 나와요. 저도 막 쌍욕하고 부모한테 엄마하고 치고 박고 싸우죠.(태도현)

태도현 학생의 부모님은 모두 신용불량자이고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라서 압류가 들어오지 못하는 상태로 어머니는 ‘옛날부터 돈쓰는 걸 좋아해가지고’ 여러 가지 물건들을 가족과 상의 없이 구매해서 더 힘든 상태다.

정수기, 공기청정기, 티비, 어 음식물처리기, 또 블루베리 뭐냐 전화기, 컴퓨터 이런 것들 뭐 한 몇 천은 깨지...예 예 저희 엄마가 그래가지고요 블루베리가요. 그 때 몸에 좋다고 막 선전을 하는데 저희 아 저희 엄마는 뭐 아빠가 절대로 사지말라고 그랬는데 엄마는 그걸 한 이백씩 주고 사 질러버려가지고 씨 그 지금 이자

까지 다해서 한 250정도 돼는데 어떻게 값아야 하나 계속 적자가 나고 있는데... 미쳤다고 보면 돼죠... 저걸 왜 샀냐? 그리고 정수기도 왜 샀냐 집에 아주 좋은 물 나오는데 그걸 왜? 그리고 공기청정기는 또 왜 샀냐 아오 그러니까 좀 살거면은 가족끼리 상의를 하고 이게 좋겠다 하고 싸게 저렴하게 살 수 있는데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한 한 한 4~5십주고 그냥 통째로 그거 할부로 끊어가지고...왜 사는지 말을 안해요. 아 그리고 아빠가 그러는데 아빠가 엄마한테 통장을 맡겼어요. 이거 절대 쓰지말라고 큰돈은 아니고 한 백만원 정도, 그걸 통째로 날려 먹어가지고...저도 몰라요. 엄마가 말을 안해요. 저한테 말을 안해요. 뭐 어따 썼는지. (태도현)

김중섭 학생의 가족도 부부 간에 싸움이 있는 편이다. ‘심할 때는 일주일에 3~4번 정도’이고, 보통 한 달에 2~3번 정도 다툼이 있다고 한다. 싸움의 원인은 아버지가 일정한 직업이 없고, 특별히 돈을 벌려고 하지 않아 어머니와 마찰이 많아서다.

한일후 학생은 김제의 한 농촌지역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한일후 학생의 말에 의하면 어려서 겪은 일이라 정확한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한일후 학생의 아버지는 술을 마시면 가족을 폭행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아버지의 음주 후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하기도 하고 한일후 학생의 어머니는 잠시 다른 지방으로 떠나 있기도 했다. 인근에 사는 할머니와 아버지의 형제들은 한일후 학생 아버지의 가정폭력이 있을 때 경찰에 연락을 하거나 잠시 집으로 데려가서 피신시켜주거나 하는 등으로 도움을 주기는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지는 않았다. 결국 아버지와 ‘분리’되어 전주에 있는 모자보호센터로 옮겨졌고, 한일후 학생이 5학년 때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혼했다. 한일후 학생과 어머니, 동생은 모자보호센터에서 2년, 완주군에 있는 모자보호원에서 5년을 거주했다.

김중섭 학생과 한일후 학생의 가족은 다문화가족의 준계급적인 부부관계가 잘 드러나는 사례다. 한일후 학생의 가족은 아버지의 일방적인 가정폭력이 있었고, 한국에 이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머니는 대응하기가 어려웠다. 현재는 가정불화가 해소되어 이로 인한 어려움은 겪고 있지 않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 한일후 학생의 어머니 혼자의 수입으로 넉넉한 생활을 하기 힘들데 최근 보호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나서 더욱 경제적으로 힘들어졌다. 한일후 학생도 부모님의 이혼 후, 학교를 제대로 다니게 되면서 늦게 공부를 접하다보니 성적이 좋은 편이 아니고 기초가 부족하다. 어머니는 어렸을 때 힘들었을 텐데 빠듯하지 않고 밝게 자란 것만 해도 감사하다며 공부와 성적에 대해서는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려고 한다. 중학

교 3학년인 한일후 학생은 충북 제천에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학교인 한국폴리텍다솜학교에 지원을 한 상태다. 이 학교는 대체로 중도입국자녀를 대상으로 취업전문 기술 등을 교육하는데 여기에 가면 수업료나 기숙사비도 무료다. 이 학교 지원자격은 다문화가족 자녀이고, 한부모가정에 우선권을 준다.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도 있지만 한부모가정으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한일후 학생은 ‘무료’라는 것과 실업제라서 일찍 취직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선택 이 학교를 선택했다.

처음에 엄마가 권유를 했어요. 이거 아니면 다른 데로 가도 상관없다고 근데 막상 보니까 좋은 거예요. 모든게 다 공짜니까 그니까 다문화니까 다문화사람들은 경제적인 면 경제적인 면으로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을 가정들을 자녀 가정들 자녀들 그니까 모아서 여기서 기숙사생활을 하게 하는 거죠... 일단 원서 넣고 면접봤어요... 근데 제가 아까 그쪽이 시설도 좋고 하니까 엄마가 글로 갈꺼냐고 물어봐서 인터넷 검색해서 제가 봤는데 전국 일위더라고요 그게 시설 그 시설 그제(한일후)

김중섭 학생의 아버지는 경제적 무능력으로 인한 어머니와 충돌이 있지만 어머니가 가족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폭력을 자녀에게 해소하는 편이다. 과거에는 이 정도가 무척 심했다. 김중섭 학생은 이에 대한 트라우마로 부모님의 싸움에 무척 민감하게 반응하고, 아버지와 같이 있는 것을 싫어한다. 4살 아래인 김중섭 학생의 동생은 아버지의 가정폭력이 심할 때 나이가 어려서 기억이 없어, 김중섭 학생과는 달리 아버지를 무서워하지 않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종종 말다툼’을 하는 정도라고 생각한다.(김중섭 멘토)

너무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든지 받아 들이는게 부정적으로, 부모님이 쪼끔만 다뤄도 그냥 그 상황이 그냥 너무나 그냥 싫은 싫은 생각밖에 안하고, 아버지한테 맨날 막 욕해요(아버지 욕을 해요) 자기만 너무 내팽겨둔다? 자기만 막 뭐해도 신경도 안쓰고, 예를 들어 공부한다고 해도 뭐라고하고, 공부안하면 또 뭐라고 하고 하면서 맨날 그런 식으로 맨날 자기를 신경 안쓴다고 욕만 자주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특별한 수입이 없다보니 경제적으로도 힘든 상태다. 김중섭 학생이 어머니에게 받은 용돈을 아버지가 빌려가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김중섭 학생은 경제적인

면보다 가정불화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받아 모든 것에 관심이 없다. 김중섭 학생의 동생은 학교나 지역아동센터에서 또래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만 김중섭 학생은 친구 관계도 좋지 않고, 친구도 없다. 담당 멘토는 모든 것에 흥미가 없는 김중섭 학생을 변화시켜보고자 전주 시내나 멘토의 대학교에도 데리고 다니고 영화를 보거나 운동을 하거나 PC방에 가서 게임을 같이 해보기도 했지만 말없이 따라오는 오지만 큰 관심은 없었다. 김중섭 학생이 멘토링을 하는 이유도 공부 때문이 아니다. 김중섭 학생은 여름 방학 중에는 멘토링을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아침 9시부터 오후 1시, 또는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에서 매일 4시간씩 일주일에 20시간씩 계속해왔다. 하지만 멘토링을 열심히 하는 것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집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다.

집에 있기는 싫고... 집에 있으면 (집안 일을)다 해야 되고 하는데 근데 이제 멘토링 간다고 말을 함으로써 이제 정당하게 나올 수 집에서 나올 수 있으니깐...절애가 이런 친구가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좀 살갑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니까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 말고 자기의 고민 들어주는 거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김중섭 멘토)

태도현 학생의 가족의 불화는 경제문제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양상은 위의 두 가족과는 달리, 아버지의 일방적인 폭력은 나타나지 않는다. 경제문제와 가정불화가 현재 진행 중이지만 가정불화로 인한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⁹⁾ 하지만 태도현 학생 가족은 대화의 주제가 대부분 ‘머니’이고,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로, 태도현 학생의 관심도 오직 돈에 관련된 것으로¹⁰⁾, 중학교 2학년이지만 돈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무척 잘 알고 있다. 아버지 자동차의 보험만료일이 언제인지, 자동차의 어느 부분을 수리해야 하는지, 도심 연비가 얼마인지 등을 자세하게 알고 있다.

차가 기름을 엄청 먹어서...네 연비가 8키로예요. 도심에선 5키로고요....차가요 인자 이제 타이어도 바꿔야하고 엔진 그 뭐 무등(확실하지 않음)인가도 바꿔야한데요. 근데 그거 총 2백에서 2백 5십 들어간다는데 그거 찻값이에요. 그거 그리고

9) 담당 멘토와 멘접자의 판단이기는 하지만, 김중섭, 한일후 학생은 가정불화로 인해 정서적인 어려움을 말했지만, 태도현 학생은 긍정적이고 밝은 모습이다.

10) 심층면접 중에도 본 연구자에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를 2~3차례 물었다.

이제 인자 보험이 9월 말이에요. 인자 그때 그때 안에는 폐차하고 그래야 한다는 데...그래갖고 경차를 뽑는다는 돈이 뭐 경차도 좋은거 뽑으려면 적어도 한 최소 사오백은 줘야 하는데...경차는 세금 또 적고 기름도 적게 먹고...(태도현)

태도현, 김중섭, 한일후 세 학생은 가정불화와 경제문제와 관련이 있고, 이것이 이들에게 가장 우선적인 문제다. 한일후 학생의 가족에게는 경제문제보다 가정불화가 훨씬 더 큰 문제였지만 현재는 해소가 된 상태다. 이혼 후 한부모가정으로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 태도현 학생의 가족은 경제문제가 좋지 않아 가정불화가 있으나 가족 간의 갈등 자체는 크지 않다. 태도현 학생은 경제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무척 심각하다. 태도현 학생에게 경제문제를 제외한 것들은 큰 문제가 아니다. 김중섭 학생은 경제문제보다는 가정불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무척 심각하다. 가정불화를 제외한 것들은 김중섭 학생에게 큰 문제가 아니다.

<표 5> 가정불화가 자녀에게 끼치는 영향

	이름	학년	가족의 상태		자녀에게 현재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가정불화	경제문제	
1	태도현	중2	진행중	진행중	경제문제
2	김중섭	중3	진행중	진행중	가정불화
3	한일후	중3	해소됨	진행중	경제문제

VI. 결론

사회계층과 가족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자녀들의 일상생활의 모습들을 살펴 본 결과 다양한 가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다문화가족의 낮은 사회계층은 교육과 진로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과 관심의 부족으로 이어졌으며, 자녀의 가치관과 진로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심한 경우 가정불화로 이어져 다문화가족 자녀의 정서적으로 어려움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경제문제는 전반적으로 모든 가족에서 나타나는데, 가정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가정불화가 종료가 되어도 여전히 지속되기도 한다.

본 연구의 면접자들의 일상생활을 통해 바라본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모습은 비다문화가족 자녀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면접자들에게서 ‘다문화’와 연관된 ‘부모의 출신국’이나 외모와 피부색과 같은 ‘인종’적인 측면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측면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경제문제와 가정불화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다문화가족 청소년과 비다문화가족 청소년이 같은 수준의 경제상황에 처해 있거나, 가정불화가 있을 때 완전히 동일하다고 단언하기는 힘들다. 라루(2012)의 지적처럼 어린 시절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모의 직업지위와 사회계층이고, ‘인종’의 문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인종’의 변수는 어린 시절보다는 성장하면서 점점 영향력을 미친다(Cornel West, 1994). 다문화가족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자아정체감 형성이 더 낮은 수준이라는 연구결과(김미혜, 1982)처럼 인종의 변수는 개인들이 성장하면서 크게 작용한다. 미국의 예처럼 중학교,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서서히 학교친구들이 같은 인종으로 구성되는 현상이 본 연구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 취직을 하거나, 결혼을 하게 될 때,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어머니가 동남아시아 출신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성장모습과 사회생활의 적응에 대해 주목해야 할 것이다.

도시, 농촌 간 지역문제와 ‘인종’의 결합도 생각해볼 문제다. 다문화가족과 그 자녀들에게 그들이 다문화가족인지 아닌지에 대한 이웃사람들의 인지여부는 지역별 차이가 크다. 본 연구자가 겪은 사례다. 한 농촌지역 다문화가족 자녀는 자신이 ‘다문화’라는 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았는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인근에 중학교가 없어 가까운 중소도시의 중학교에 입학하고 난 후 친구들이 ‘다문화’라고 놀리는 것 때문에 멘토에게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비슷한 사례로 타지역의 고등학교에 입학한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담임선생님은 전에도 문제가 있었다며 ‘다문화’임을 절대 밝히지 말고, 밝혀질 염려가 있으니 멘토링도 중단하기를 권했다.

부모의 출신국에 따른 차이점도 있다. 본 논의의 대상이 되는 지구적 불평등으로 구조적 문제로 발생한 저개발국 출신 여성결혼이민자와의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가족이 아닌 미국, 유럽 등 국가 출신의 결혼이민자와의 국제결혼 가족은 이들과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오랫동안 한국 사회는 단일한 인종으로 구성된 사회였고, 사회적 불평등의 큰 축인 계급과 젠더만 존재했다. 이제는 다문화(인종)라는 축이 추가된 이상 중도입국자녀, 한국의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다문화가족에 해당되지 않는 체류외국인가족과 그 자녀

들과 같은 더욱 다양한 집단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같은 측면을 볼 때, 앞으로의 다문화가족 자녀들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는 이들이 온전한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초다.

참고문헌

- 김미혜. 1982. “혼혈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사업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순규. 2011. “다문화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 《청소년연구》 18(3): 247-272.
- 김승권. 2010. “한국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정책적 함의.” 《보건복지포럼》 165: 5-18.
- 김승권·김유경·조애저·김성희·이건우·곽배희·박소현·신연희·정춘숙·채규만·현혜순·김은경·전영실·강은영. 2008. 『2007년 전국 가정폭력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김현미. 2006. “국제결혼의 전 지구적 젠더 정치학: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70: 10-37.
- 남영호. 2008. “‘주둔지 혼혈인’과 생물학적 시민권.” 『혼혈에서 다문화로』. 일지사. pp. 131-171.
- 라루, 아네트(Lareau, Annette). 2012. 『불평등한 어린 시절: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불평등의 대물림』. 박상은 역. 에코리브르.
- 부르디외, 피에르(Bourdieu, Pierre). 1995. 『상징폭력과 문화재생산』. 정일준 역. 새물결.
- 새머스, 마이클(Samers, Michael). 2013. 『이주』. 이영민·박경환·이용균·이현욱·이종희 역. 푸른길.
- 설동훈. 1999.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학교출판부.
- 설동훈·김윤태·김현미·윤홍식·이혜경·임경택·정기산·주영수·한건수. 2005. 『국제결혼 이주 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보건복지부.
- 설동훈·윤홍식. 2008.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적응과 복지정책의 과제: 출신국가와 거주지역에 따른 상이성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4(2): 109-133.
- 설동훈·한건수·이란주. 2003. 『국내 거주 외국인노동자 아동의 인권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오만석. 2011.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의 현실과 과제: 여섯 가정을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연구》 4(1): 43-77.
- 전경숙·송민경. 2011. “다문화가정 자녀의 출신국적 배경에 따른 한국생활 적응의 차이.” 《청소년연구》 18(11): 305-330.

- 전기택·정해숙·김이선·김영란·주재선·김혜영·손창균·이재분·정기선·황정미·강민정·선보영·최윤정·주유선·박건표·동제연. 2013.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여성가족부.
- 파레냐스, 라셀 살라자르(Parrenas, Rhacel Salazar). 2009. 『세계화의 하인들: 여성, 이주, 가사노동. 문현아 역. 도서출판 여이연.
- 한건수. 2006. “민족은 국가를 넘을 수 있는가.” 《황해문화》 51: 70-82.
- Castles, Stephen, and Mark J. Miller. 2009. *The Age of Migration*, Fourth Edition.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Chiswick, Barry R. 1978. “The Effect of Americanization on the Earning of Foreign-Born Me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6(5): 897-921.
- Piore, Michael J. 1979. *Birds of Passage: Migrant Labor in Industrial Societies*.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iper, Nicola, and Mina Roces. (eds.) 2003. *Wife or Worker?: Asian Women and Migration*. Lanham, MD: Rowman and Littlefield.
- Portes, Alejandro, and Rubén Rumbaut. 1996. *Immigrant America: A Portrait*.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West, Cornel. 1994. *Race Matters*. New York: Vintage Books.

(2019. 1. 1. 접수; 2019. 2. 15. 수정; 2019. 3. 10. 채택)

Daily Life of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Focusing on Social Class and Family Discord

Young-Hyo Seo
Jeonbuk National University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are a phenomenon caused by the combination of the lack of marriage partners and the feminization of migration, especially among men in rural areas due to the imbalance of gender ratios in Korean society. As a result of this, the characteristics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are low economic status and quasi-class relations between couples. This study examines how the social class of the family and family discord affect 9 children of junior high and high school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on their daily life.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social class of the family was remarkable in terms of interest in private education and education of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Family discord has many aspects that are linked to economic problems, and it is understood that it affects the values and daily life of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continuously.

Keywords: multicultural families,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daily life, poverty, family discord

연구논문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삶의 만족도에 대한 경로모형: 사회적 자본과 우울의 매개 효과 분석

인선영 *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과 언어 능력이 삶의 만족과 우울증의 매개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사회적 자본에 초점을 맞추어 삶의 만족과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발견하고자 했다. 또한, 여성 결혼이민자 집단은 출신국에 따라 상당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에 전체 표본 집단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 후 각 결혼 이민자 그룹을 출신국별로 나눠 분석하였다. 분석은 SPSS 22.0 및 AMOS 23.0을 활용하였으며, 2015년 전국 다문화 가족 설문 조사에 대해 데이터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경로분석 및 다중집단분석을 수행하여 출신국별 차이를 확인했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여성 결혼이민자들 사이에서 사회적 자본은 우울증 및 삶의 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가졌다. 또한, 우울증은 사회적 자본과 삶의 만족도 사이를 매개하였으며, 다중집단분석의 결과를 보면 사회적 자본, 우울증 및 삶의 만족도의 직간접적 영향이 출신국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결론적으로 결혼이민자 출신국의 문화적 배경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정책지원은 오히려 정신건강과 삶의 만족도를 저하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주제어: 이민자, 삶의 만족도, 사회적 자본, 우울증, 언어능력, 민족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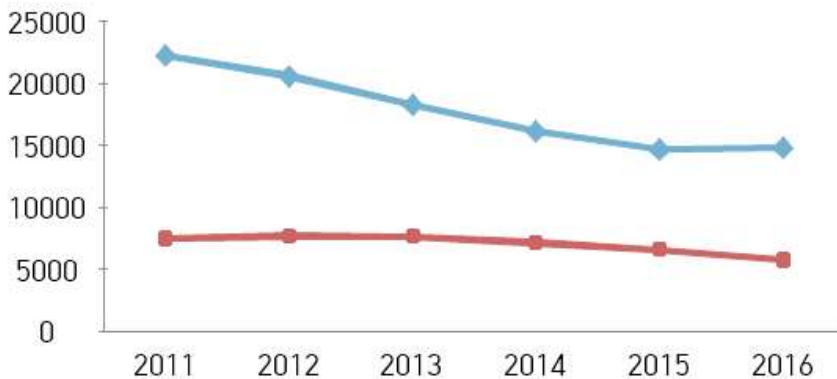
* 현대리서치연구소 연구본부 연구5팀 연구원. dlstjs1101@daum.net 주저자. 교신저자.

I. 서론

1. 연구배경

한국은 세계화의 확산으로 인해 외국인노동자, 결혼이민자 등 다양한 국적과 인종이 공존하고 있다. 2016년 말 기준 국내 체류외국인은 2,049,441명으로 2015년 대비 8.5%(159,922명) 증가하였고, 최근 5년간 매년 9.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법무부, 2016). 전체 이민자 중 결혼이민자는 152,374명으로 추정되며, 여성이 84.3%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추이를 볼 때 2020년에는 여성결혼이민자는 35만 명으로 약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설동훈 외, 2009).

우리나라에서 국제결혼은 1990년대 중반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5년 기점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2016년 국제결혼 건수는 2만 건 내외로 총 결혼 건수 대비 7% 내외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통계청, 2016). 또한 중국,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태국, 우즈베키스탄 등 출신국적이 다양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렇듯 한국 사회에서 국제결혼은 더 이상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되었다.



(자료: 통계청 2016)

[그림 1] 국제결혼부부 혼인 추이, 2011~2016년

특히 결혼이민자는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이주노동자와 달리 수용국에서의 영구정착을 전제로 하며 그들의 자녀까지 한국사회에 편입되기 때문에 이들의 안정적인 정

착과 삶의 행복을 위한 사회전반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한국사회의 진입 동기로도 국경의 이동을 통해서 출신국보다 경제적으로 더 나은 나라에서 살고자하고, 만족스럽고 윤택한 삶의 질을 상승을 추구한다.

그러나 결혼이민자들의 모국을 떠나 낯선 수용국에서 시작된 생활은 문화적, 사회적 차이로 인한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결혼이민자는 가정이라는 사회적 영역에서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과 종속적인 관계가 성립되며 사회적 자원에서도 일방적인 한국문화의 학습을 요구받게 된다. 또한 이들은 자신의 가족과 친정, 시댁의 생계를 책임지는 ‘노동자’이면서 아내, 어머니 며느리 등의 가족 내의 지위를 가짐과 동시에 두 나라의 ‘시민권’이 교차하는 복합적인 지대에 자리하고 있다(설동훈 외, 2006). 이처럼 불평등 관계에서 출발하는 생활은 배우자에 보다 결혼이민자에게서 심각한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가족생활과 일상생활에서의 적응에 어려움을 낳게 된다(박재규, 2010).

결혼이민자는 낯선 사람들과 익숙하지 않은 환경, 의사소통의 어려움, 생활방식과 가치관의 차이로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한진수, 2006).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연구자들이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자본에 주목했다(Portes, 1998; Lin, 2001; Garcia et al. 2002; Marina and Uma, 2006; 장지혜, 2010; 권구영·박근우, 2007; 이민아, 2010). 결혼이민자는 결혼과 동시에 모국에 있던 네트워크가 끊어지고 한국에 정착해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이들의 새롭게 형성된 네트워크는 수용국의 정보를 얻거나 적응, 정서적 지지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도움을 주거나 받으며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구축해나간다. 또한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자본은 가족과 같은 한국인뿐만 아니라 결혼이민자의 모국 출신의 친구나 동료의 연계나 네트워크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결혼이민자가 한국사회의 생활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은 언어소통의 문제로도 발생할 수 있다.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는 결혼이민자가 한국생활 중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지 물었는데 대부분 ‘언어소통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결혼이민자의 의사소통의 문제는 배우자는 물론 사회, 전반적인 모든 생활을 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한국어, 한국문화 교육을 통해 한국사회로 편입을 강요하는 동화주의 요소가 강하며 남편과 가족은 가정 내에서 한국어를 사용하기 바랄 뿐 결혼이민자의 모국어를 배우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낮은 사회적 자본 수준, 강압적인 주류사회로의 적응과 모국의 언어, 문화를 포기할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결혼이민자에게 우울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된다. 결과적으로 삶의 만족도를 떨어트릴 수 있으며 심지어 가족해체로 확산될 수 있다. 실제로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건수는 2004년 3,300건에서 2011년 11,495건을 급증했다가 2016년 7,665건으로 다소 줄어들었다. 그러나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서도 이혼/별거 전 혼인지속기간은 7.1년으로 2015년 기준 한국인 부부의 14.6년보다 짧게 나타난다(통계청, 2016).

그러므로 결혼이민자의 적응문제는 나아가 사회문제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밝혀내고, 그에 따른 문화·사회·제도 등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결혼이민자 증가에 따라 정부에서는 2008년부터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성과주의 위주의 정책이거나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동화 정책만 펴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의 결혼이민자 연구에서도 사회적 자본과 우울 및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결혼이민자의 출신국을 소수의 국가만 고려하거나, 그 이상 경우는 질적 방법 위주로 연구되어 왔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전국에 있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토대로 출신국의 다양성을 보완하여 결혼이민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회적 자본, 우울,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검토해보고 출신국별로 삶의 만족도가 어떤 요인으로 구성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목적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만족도 정도는 결과적으로 가족 구성원 전체의 안정과 사회의 재생산성, 지속가능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분석 자료를 근거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을 우울의 매개 효과를 분석하고 결혼이민자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결혼이민자들이 사회적 자본, 부부의 언어 능력, 우울, 삶의 만족도에 대해서 얼마나 인식하는지 정도를 밝히고자 한다. 둘째, 결혼이민자들이 우울 변수가 사회적 자본, 부부의 언어 능력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어떻게 매개하는가를 검증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이 삶의 만족도에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주목한다. 셋째, 결혼이민자의 주요 출신국을 비교해봄으로써 언어, 문화의 다양성을 고려한 다문화 정책의 필요성을 조명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연구가설 및 연구 모형

1. 결혼이민자의 개념 정의

다문화가정지원법 2조에 의해 "결혼이민자"란 재한한국인 처우 기본법 제 2조 3호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하며 국적법 4조에 의해 귀화허가를 받은 자로 정의한다. 현재 결혼이민자는 이주여성, 결혼이민자여성, 혼인이주여성, 국제결혼이주여성 등 다양한 용어로 연구보고서, 학술지, 기사 등에서 혼용되어왔다. 특히 이주여성이라는 명칭은 흔히 사용되고 있으나 이주여성은 ① 여성 이주노동자, ② 여성 결혼이민자, ③ 성매매 종사 외국인(또는 이민자) 여성, ④ 국제적 인신매매 피해 여성을 아우르는 복합개념이므로(설동훈·박경태·이란주, 2004), 본 연구에서 한국인 남성과의 결혼으로 인해 국내에 정착하게 된 이민자를 뜻하기 때문에 이주여성이란 용어는 적절치 못하다. 이러한 용어상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국제 용례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결혼이민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2. 사회적 자본과 삶의 만족도

1) 사회적 자본의 개념

사회적 자본은 사회학, 경제학, 심리학, 교육학 등 여러 학문 분야에서 널리 연구되고 있는 주제 중 하나다. 사회적 자본은 1916년 시골 공동체 센터에 관한 책을 썼던 농촌 교육학자 하니판(Hannifan)으로부터 최초로 언급되었지만 부르디외(Bourdieu)와 콜만(coleman)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사회적 자본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부르디외(Bourdieu, 1986)는 자본을 3가지 요소로 보았는데 경제자본, 문화자본, 사회자본이다. 부르디외는 사회적 자본을 '상호적 면식이 있고 제도화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보유하는 현실적 또는 잠재적인 자원의 총체'라고 정의했다. 특정한 행위자의 소유된 사회자본의 양은 그 행위자가 동원 가능한 네트워크의 크기와 그 네트워크에 연결된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경제자본, 문화자본, 상징 자본의 양에 달려있다. 행위자가 가지고 있는 문화자본이나 경제자본이 높을수록 사회자본이 높아지며, 사회자본이 풍부할수록 문화자본이나 경제자본도 높아진다고 말했다.

사회의 결속을 강화하는 기능을 강조했던 콜만은(coleman, 1988) 둘 혹은 다수의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의 구조 안에 내재하고 있는 사회적 자본은 최소한 두 가지 특징을 공유해야 하는데 첫째,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구성되며 둘째, 주어진 구조에 속하는 개인이나 집단이 특정한 행위를 유도하고 촉진해야 된다. 폐쇄적 사회구조 속에서는 신뢰, 규범, 지지 등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퍼트남(Putnam, 2000)은 사회적 자본은 연결망, 규범, 그리고 신뢰로 구성되어 있으며 퍼트남은 사회신뢰와 행복감, 그리고 웰빙(Well-being) 간의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국내 연구에서는 박희봉·이희창(2005)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같이 신뢰, 참여, 네트워크로 구성한 사회적 자본을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개인들의 보유한 사회경제적 요인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며 사회적 자본과 결합할 때 더욱 큰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적 자본이 삶의 만족도에 기여하지만 너무 과도할 경우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U자 형태의 곡선을 그린다는 연구도 있었다(유석춘·장미혜·정병은·배영, 2003; 심성재, 2015).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주요 요인으로는 네트워크(Network), 규범(Norm), 신뢰(Trust) 등이 있는데(Putnam, 1993; 1995), 사회적 자본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와 구성요소는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사회적 구조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자원이라는 점에서 일맥상통한다.

먼저 네트워크를 살펴보면 콜만과 부르디외의 밀집된 혹은 친근한 네트워크는 집단 자본이 유지될 수 있고 집단의 재생산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간주된다(Lin, 2001). 포르테스(Portes, 1995)도 사회적 자본은 ‘관계망 또는 광범위한 사회구조의 구성원이 됨으로서 희소자원을 요구할 수 있는 행위자의 능력’으로 보아 미시적 측면을 강조했다. 버트(Burt, 1992)는 연결망에서 구조적 구멍(Structuralhole)을 가질수록 정보의 적시성, 그리고 소개(Referring)에 의한 연결망의 재창출과 같은 정보력이 증대된다고 하였다. 구조적 구멍은 연결망에서 위계구조의 상층부에 있을수록 소유하게 된다는 점에서 구성원들이 적절한 정보를 신속하게 획득하기 위해서는 수평적일 수록 정보와 영향력 집중도가 낮아지므로 정보의 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며, 연결망 기반이 잘 구축되어 있을수록 상호작용 결속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연결망 특성에 따라서 사회적 자본의 구조적 가치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퍼트남(Putnam, 2000)은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관계망을 결속적(Bonding) 차원과 교량적(Bridging)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결속적 차원은 높은 수준의 정서적 지지가

이루어지는 친밀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강한 연계를 이루며 교량적 사회적 자본은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성기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이른다. 특히 약한 연계인 교량적 사회자본 네트워크 내에서는 여러 가지 관점과 새로운 정보가 소통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주목할 수 있다.

린(Lin, 2001)은 사회적 자본을 어떤 행위자의 사회적 네트워크에 내장된 자원과 그러한 자원에 대한 접근과 사용이 개인의 행위에 혜택을 주는 방식에 초점을 둔다. 그들의 사회적 연결의 범위와 다양성에 따라 상이한 자원을 가지게 된다. 특히 물질 자본, 인적자본, 사회자본은 모두 자본의 상이한 형태이며 공통적으로 '이익을 기대한 자원에 대한 투자'로 보았다.

또한 사회참여는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볼 수 있다. 팔모어(Palmore, 1981)는 사회참여를 다른 사람과의 상호교류와 관련된 일정한 규칙이나 형태의 활동으로써, 사회적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사고와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퍼트남(Putman, 1993)은 시민사회에서 사회참여정도로 사회적 자본을 정의하고 있는데, 자발적 결사체와 참여 정도는 사회의 폭을 나타낸다. 시민사회에 참여함으로 인해 네트워크, 규범 신뢰를 증진시키고 향상시킨다. 특히 여성결혼이민자는 사회참여가 높을수록 문화습득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결혼이민자가 고립되거나 주변화 되는 것을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Berry, 1987).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볼 때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네트워크에 접근되는 자원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를 네트워크, 사회참여로 정의한다.

2) 삶의 만족도의 개념

이민자의 삶의 만족도는 그들이 얼마나 수용국에 적응과 통합했는지를 나타내는 주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Amit, 2010). 따라서 삶의 만족은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에 적응과 정착을 측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척도라고 볼 수 있다. 삶의 만족도에 대한 사회학적 시각은 사회 체계 및 사회 구조와 삶의 만족도 관계의 메커니즘을 밝히는데 주목하며 개인적 차원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사회적 차원의 개념으로 이해한다(김선아·박성민, 2013).

삶의 만족도¹⁾ 연구는 1961년 뉴가튼 외 연구자들(Neugarten et al, 1961)이 노인

1) 삶의 만족도는 생활만족도, 생활만족, 삶의 질, 행복 등 다양한 용어로 혼용되어 쓰이고 있다. 개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개념들을 삶의 만족도로 통일했으며, 참고문헌

의 삶의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연구하면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자신의 일상생활의 활동을 통해 기쁨을 느끼고 자신의 삶에 대해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간주하면서 긍정적인 자아상을 지니며, 자신의 삶의 목표를 성취했다고 느끼면서 낙천적인 태도와 감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조지(George, 1979)는 자신이 바라던 것과 실제 성취한 것을 비교하여 자신의 존재 상태를 평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행복을 포함한 복합적인 개념이라고 정의했다.

디너(Diener, 1985)는 삶의 만족도를 판단적인 과정이며, 인간의 삶의 질에 대한 광범위한 평가라고 했으며, 페란스 외(Ferrans and Powers, 1992)는 삶의 영역에 대한 만족 또는 불만족에서 유래하는 웰빙(well-being)에 대한 개인의 의식이며 신체적, 정신적, 사회경제적 등에서 개인이 지각하는 주관적인 안녕상태로 보았다. 세계보건 기구(WHO, 1998)에서는 “한 개인이 살고 있는 문화권과 가치체계의 맥락 안에서 자신의 목표, 기대, 규범, 관심과 관련하여 인생에서 자신이 차지하는 상태에 대한 개인적인 지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내 연구에서는 김명자(1982)는 생활전반적인 행복과 만족의 주관적인 감정이자 일종의 태도라고 하였고 곽인숙(2011)은 인간이 내외부적 요인에 의해 주관적으로 느끼는 느낌으로 과거와 현재, 미래를 포함한 개인의 역사에 영향을 받으며, 행복과 만족을 느끼는 주관적이고 포괄적인 감정이라고 하였다.

이민아(2011)는 삶의 만족이란 자신의 삶의 전반에 관해 주관적으로 느끼는 종합적인 평가로써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개인에게 삶의 중요한 목적이 된다고 말했다.

우명숙 외(2013)는 개인이 스스로 자기 삶에 대한 만족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개인이 가지는 느낌이나 감정과는 다르게 전체적인 삶을 총괄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객관적인 속성으로서 삶의 만족도는 소득수준이나 교육수준, 직업 등의 조건을 반영한 지표의 개념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캠프bell 외(Campbell et al. 1976)는 생활환경 등의 객관적인 차원이 향상되었음에도 사람들의 만족도는 오히려 저하되고 있는 사례를 예로 들면서 객관적 차원과 주관적 차원이 반드시 병행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삶의 만족도는 이민자가 한국생활에 얼마나 적응했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척도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결혼이민자의 경우 본국보

다 더 나은 환경에 살고하자는 의지가 결혼을 선택하는 주요한 동기가 되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이민자들이 삶의 만족도는 어느 수준인지, 어떤 요인들과 관계가 있는지 파악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회경제적 수준으로 측정하는 객관적인 삶의 만족도는 동일한 조건이더라도 개개인마다 다르게 평가되고 해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결혼을 통해 한국에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에 중점을 두고 정착 이후 그들의 전반적인 삶의 대한 주관적인 만족으로 정의한다.

3)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자본과 삶의 만족도

결혼이민자의 경우 사회적 자본이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는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여성 이민자들이 수용국 사회의 정착에서 가족, 친구, 다른 나라의 이주민과의 네트워크, 지역 커뮤니티 활동 등과 같은 사회적 자본이 여성이민자의 사회적응에 도움을 준다고 나타났다(Marina and Uma, 2006).

가르시아 외(Garcia et al. 2002)의 연구에서도 스페인 내 이민자 여성의 보유한 네트워크 중 스페인인 네트워크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 높은 반면 지역사회와 가족의 소외는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린과 형(Lin and Hung, 2007)은 가오슝에 거주하는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의 삶의 적응, 사회적지지, 우울과의 관계를 탐구했는데, 베트남 여성의 사회적 지지와 삶의 적응 사이에는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사회적 지지와 우울, 삶의 적응과 우울의 상관관계는 유의미한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나타났다.

결혼이민자의 특성을 고려해볼 때 그들의 사회적 자본은 모국의 사회적 자본과 정착국의 사회적 자본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포르테스(Portes, 1995)는 이민자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이주민 집단 내 네트워크를 강조했다. 이민자들의 집단거주지에서 생활함으로써 구성원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수용국의 적응을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용균(2007)의 연구에서는 한국인과 접촉이 빈번하였지만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친하게 지내는 친구는 대부분 같은 출신국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이며, 김영란(2007)은 여성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인과 접촉할 기회는 어느 정도 형성하고 있지만 중요한 관계망은 모국 출신의 이민자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이민아(2010)의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이민 전후의 사회적 연결망에 주목했는데 이민 전후 모국인 동료의 네트워크에서 오히려 삶의 만족도가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이민자들을 통제하거나 구속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경미(2012)의 연구에서는 본국 가족의 지지망은 물리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반면 한국 가족 지지망은 한계점을 보였다고 밝혔다. 또한 결혼 초기에는 가족연결망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결혼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외의 사회연결망도 유의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순미 외(2009)는 농촌지역 결혼이민자의 사회참여활동의 경험여부나 태도가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했는데 농업활동, 지역사회활동, 취업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집단이 적극적인 참여태도를 보였으며 농업활동참여태도, 지역사회활동참여태도 수준이 높을수록 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는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논의를 종합해보면 사회적 자원은 결혼이민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참여, 모국인과 한국인의 네트워크에 따라서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를 보일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자원은 결혼과 동시에 모국에 있던 네트워크가 끊어지고 한국에 정착해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어야하기 때문에 한국인과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민자라는 지위는 모국 출신의 연계나 네트워크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해 볼 때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를 모국인과 한국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해보고자 한다.

[가설 1-1]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자원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사회적 자본과 우울

1) 결혼이민자의 우울

우울증은 전 세계 인구 중 100명 중 4명이 우울증을 경험할 정도로 흔하게 일어나는 심리적 질병 중 하나다. 또한 2015년 기준으로 10년 전 2005년보다 18.4% 증가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여성, 노인, 아동 등이 우울증에 더욱 취약하다(WHO, 2017).

우울은 개인의 의욕과 능력을 감소시켜 생활에서의 적응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기억, 인지, 태도, 사고 등에서부터 사회관계까지 여러 분야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마음의 상태이다(Gotlib and Hammen, 1992; Joiner and Metalsky, 2003).

국민건강보험평가원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우울증 진료를 받았던 인원을 조사한 결과, 591,276명이었던 진료환자 수가 4년 만에 643,102명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여성이 65.1%로 남성에 비해 여성이 약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결혼이민자는 결혼을 계기로 한국사회에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존재로 이러한 과정에서 우울, 정신건강 상의 위기를 경험할 수 있다(Berry, 1997; 권규영·박근우, 2007).

결혼이민자의 정신건강 중 우울, 불안 등을 다룬 연구를 살펴보면, 스티프슨 외의 연구자들(Stimpson et al. 2007)은 미국의 멕시코 결혼이민자들은 미국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우울로 갈 수 있는 위험과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보건복지부(2005)가 전국의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우울 수준을 측정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5.3%가 우울증상을 보였고 이는 한국인과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보였다. 양옥경과 김연수(2007)의 연구에서는 서울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우울을 파악한 결과, 결혼이민자의 26.9%가 우울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수치는 자국민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해보면 결혼이민자의 경우 기혼여성과 이주민의 지위에 겹쳐져 있기 때문에 여성의 정신건강 문제와 이민자의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용국에서 새롭게 적응해야하는 결혼이민자의 경우 사회관계의 부족으로 인해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상 문제에 노출되기 쉽다. 따라서 우울에 대한 관심은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과제로 여겨질 수 있으며 결혼이민자들의 우울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자원 확보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2)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자본과 우울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소외감, 외로움, 정체성 혼란 등의 정신건강문제와 적응의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주변의 네트워크는 이러한 문제의 완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홍봉선·아영아·우은정, 2012).

최혜지 외(2015)는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 우울의 영향관계를 분석했는데 사회적 자본과 우울과의 인과관계에서 사회적 자본을 네트워크, 참여, 신뢰, 규범 4가지 주요 요인을 분석했고 사회참여와 네트워크만이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본의 하위차원임에도 우울에 미치는 효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난 이유는 사회참여 및 네트워크와 신뢰 및 규범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말했으며 사회참여와 네트워크는 개인과 개인의 미시적 체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자본인 반면 신뢰와 규범은 개인과 지역사회 또는 개인과 거시사회체계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사회적 자본이기 때문에 미시적 체계의 자본이 우울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결혼이민자와 유사한 새터민의 우울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최소 6개월 이상의 적응기간을 거친 새터민 여성의 사회적 자본이 우울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엄태완, 2012). 그러나 이민아(2013)는 사회 연결망의 크기나 접촉빈도가 사회적 연결망과 우울 간에 U자형의 비선형 관계가 존재한다고 말한다. 사회적 연결망의 크기가 증가할 수록 우울이 감소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도한 크기의 사회적 연결망은 다시 우울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 연결망의 효과는 대인신뢰의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해볼 때 사회적 자본은 우울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의 구성 요소를 사회참여, 모국인 네트워크, 한국인 네트워크로 구분하여 분석해보고자 한다.

[가설 2-1]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자본은 우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부부의 언어 능력과 삶의 만족도

이주민의 전반적인 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로는 이주국 언어실력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2015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는 결혼이민자가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이라고 밝혔으며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있어서 일상 생활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언어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결혼이민자가 언어적 차이를 잘 극복하는지가 한국사회 적응에 중요한 단면이 될 수 있다. 수용국의 언어를 능통하게 구사하는 능력은 정책지원과 프로그램으로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며 이민자들의 문화적응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Barry, 1997).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능력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양순미·최규홍·강경하, 2009; 장은애·최영, 2010; 김한성·이유신, 2013)도 있는 반면 여성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능력이 결혼 만족에 일관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상반된 연구가 나타났다(채병희, 2009; 김미우·김영란, 2012).

오히려 결혼이민자가 한국어 능력 수준이 높을수록 갈등을 겪는다는 연구도 있었다(한건수, 2006; 설동훈·이계승, 2011). 한건수(2006)는 한국어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조선족 출신 여성결혼이민자는 가족과 갈등을 빈번하게 겪으며, 설동훈·이계승(2011)은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능력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를 낮추고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의향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얻었다.

현재 결혼이민자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결혼이민자가 한국어를 얼마나 잘 구사하느냐에 관해서만 진행되어 왔으며 배우자가 결혼이민자의 모국어를 얼마나 수용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배우자가 결혼이민자의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어 능력을 배운다는 것과 차이가 있다. 이들의 모국어 사용 능력은 결혼이민자와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 그 이상으로 관계형성과 결혼이민자의 문화 존중, 이해까지 포함된다(정의정·하규수, 2012).

배우자는 결혼이민자가 가장 먼저 형성하는 네트워크이며 수용국에 정착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해볼 때 배우자와의 신뢰와 소통이 원활할수록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이선영(2015)은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능력이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며 결혼이민자의 삶의 만족도와 유사한 결혼만족도의 전반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서로가 상대 언어에 대한 언어수용태도(언어 수용정도와 언어사용 능력)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선영의 연구결과, 배우자의 모국어 능력이 높거나 가족으로부터 모국어를 쓰도록 격려를 받고 자녀에게 모국어를 가르치는 환경을 가질수록 결혼생활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주원 외(2016)는 한국 남편의 결혼이민자의 모국어 사용 능력 수준과 삶의 만족도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어 능력과 가족의 이중 언어를 수용하는 태도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박은희 외(2012)의 연구에서는 전라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능력과 남편의 아내 모국어 실력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연구도 있었다.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볼 때 부부의 언어 능력은 결혼이민자의 삶의 만족도에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언어 능력이란 부부 간 상대방의 모국어 구사능력을 뜻한다.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 능력 수준이나 배우자의 모국어 능력 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알아보고자 한다.

[가설 3-1] 결혼이민자부부의 언어 능력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5. 부부의 언어 능력과 우울

결혼이민자의 우울과 관련이 있는 또 다른 요인은 수용국의 언어 능력이다. 원활한

의사소통은 결혼이민자가 행복한 결혼생활 및 삶의 만족도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다. 부부의 언어 능력은 가족의 행복, 삶의 만족도, 우울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오남(2006)은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은 부부간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부갈등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베가 외(Vega et al. 1984)는 미국 라틴계 이민자의 우울에 미치는 요인을 연구했는데 영어보다 자신들의 모국어를 사용하는 이민자들이 더 우울하다고 밝혔다. 조인주와 현안나(2012)는 베리와 샘(Berry and Sam)의 문화변용과 적응과정 이론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결혼이민자의 우울 영향 요인들의 관계를 분석했는데 한국어 능력은 우울과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지만 결혼이민자의 향수병과 매개해 간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밝혔다.

강복정 외(2016)는 방문 자녀생활서비스를 이용하는 유아 및 초등학생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자녀양육경험과 자아존중감과 우울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한국어 능력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낮았다. 그러나 한국어 능력이 결혼이민자의 우울이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들도 있다(양옥경·김연수, 2007; 정기선·한지은, 2009; 임혁, 2010; 현경자·김연수, 2012).

배우자의 모국어 능력이 결혼이민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거의 없다. 홍종명(2012)은 남편에게 자신의 모국어를 가르쳐 준 적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에서 전체 절반 정도는 교육을 시도한 경험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또한 기본적으로 한국인 남편이 자신의 모국어를 학습하고 사용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이민자가 그들의 모국의 언어, 문화를 유지하는 것을 희망하며 주류사회로의 무조건적인 적응과 모국의 언어, 문화를 포기를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결혼이민자에게 우울 수준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박경애와 정혜선(2011)은 부부 의사소통, 부부친밀감은 결혼이민여성의 삶의 만족도와 우울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권순희(2009)는 시댁 가족들이 여성결혼이민자의 언어와 문화를 인정하지 않고 모국어 사용을 억제시키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자녀와 깊이 있는 정서적 교류를 나누지 못하고, 안정적인 애착관계 형성에도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결혼이민자는 한국어 능력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모국어 능력이 우울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4-1] 결혼이민자부부의 언어 능력은 우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6. 우울과 삶의 만족도

윌리엄스와 베리(Williams and Berry, 1991)는 타국의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불안이나 우울, 소외감 및 절망감, 정체성 혼란, 신체적 증상과 같은 심리적, 신체적 어려움 등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출신국을 떠나 새로운 문화권으로 이동한 이민자의 경우 다양한 사회심리학적 문제와 정신건강 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신건강의 이슈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중요한 개념이다(양옥경, 2007).

우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묘숙(2010)의 연구에서는 노인의 우울, 죽음 불안,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노인들의 우울은 노년기에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정신건강의 가장 큰 문제점이며 노인들의 삶 전반에 걸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죽음 불안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김혜령 등(2008)의 연구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대상으로만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우울이 낮을수록 삶의 질이 높았으며 마이넛(Mynatt, 2004)의 연구에서는 우울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삶의 질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결혼이민자의 경우 박은희 외(2012)는 전라북도 지역 여성결혼이민자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를 조사한 선행 연구에서 우울증이 있으면 삶의 만족도가 유의하게 낮았다고 밝혔다. 김현실과 정영미(2011)의 연구에서도 경상북도 지역 여성결혼이민자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에 대한 영향요인을 조사한 연구에서도 우울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아졌다.

이와 같이 우울은 결혼이민자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서 우울 정도에 따라 삶의 만족도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결혼이민자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는 현재 미흡한 실정이다. 설동훈 외(2006)는 2005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전국 결혼이민자실태조사에서 심리적 부적응에 대한 결과 이후 심층적인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이전까지 주관적 건강상태만을 다루어 왔지만 2015년도부터 우울 변수를 추가했다. 이처럼 지역단위가 아닌 전국 단위의 결혼이민자에 대한 우울 정도는 삶의 만족도의 수준을 판단하고 나아가 사회적 자본, 부부의 언어 능력과 삶의 만족도에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가설 5-1] 결혼이민자부부의 우울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7. 결혼이민자의 출신국

한국은 1990년대까지는 종교단체를 통해 입국한 일본출신의 여성결혼이민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압축 성장 이후 도·농간의 성비 격차가 발생했고 혼인하지 못하는 남성이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정책으로써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으로 중국 조선족 여성과의 결혼이 추진됐다. 2000년대 초부터는 중국 및 필리핀 국적 결혼이민자 수의 급격한 증가가 두드러졌으며, 최근에는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태국 등 출신국적이 다양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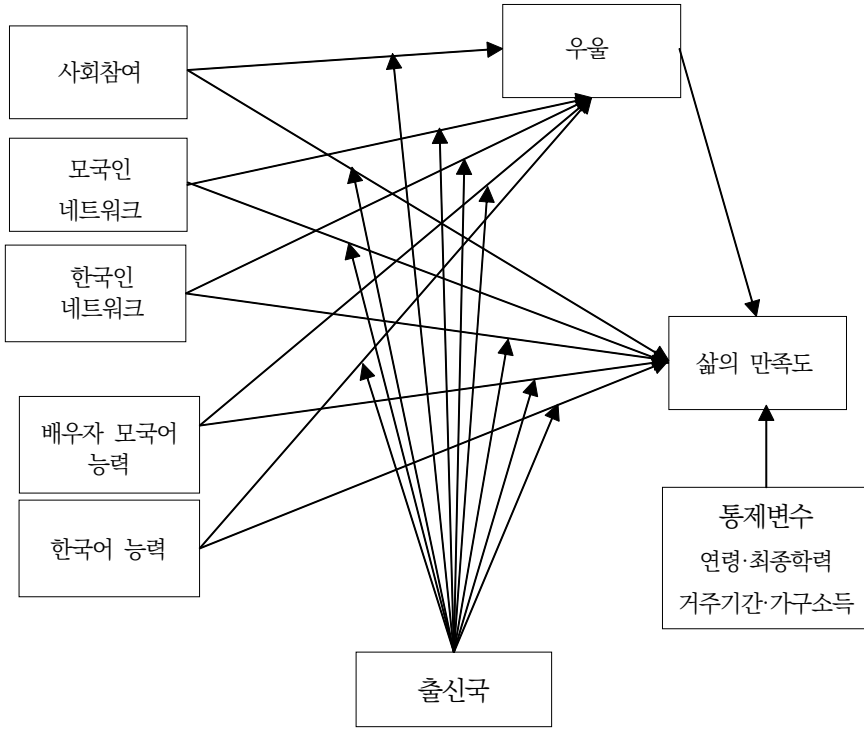
설동훈·윤홍식(2008)은 결혼이민자의 출신국에 따라 문화적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또한 문화적 유사성 높은 중국의 경우 문화적응이 높을 수 있으며 유사성의 낮은 국가는 한국사회에서의 적응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양순미, 2006; 임은미·정성진·이수진, 2010).

그러나 우명숙 외(2017)는 유교문화를 공유하는 국가들을 여전히 동질적인 문화를 통해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사회, 정치, 경제적으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공유하는 문화로만 이해될 수 없는 차이점들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다른 연구에서도 출신국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달라진다는 결과를 제시했다(Suh and Oishi, 2004; 김경미, 2012; 이홍재·박미경·차용진, 2017). 사회적 자원의 수준은 이민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이민자 집단 전체가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수준에 아니기 때문이다(Lin, 2000).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결혼이민자가 출신국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6-1] 출신국별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간접효과와 직접효과의 경로의 차이가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제시한다.



[그림 2 연구모형]

Ⅲ. 자료 및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

본 연구는 2015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원자료를 분석한 2차 자료 분석연구이다.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실태조사 등)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근거하여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국가승인통계(제11779호)로서 3년 주기로 시행된다. 2012년 전수조사에서 표본조사로 전환하였으며, 2015년에 시행되는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표본조사로 이루어지는 두 번째 조사이다.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조사기준일은 2015년 7월 1일이며, 7월 22일~8월 18일까지 약 20일 동안 조사가 실시되었다. 조사 결과 전체 표본가구 27,120가구 중 65.8%인 17,849가구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었으며 결혼이민자·귀화자 조사표는 표본가구의 63.1%인 17,109명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었다.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조사표는 결혼생활 및 가족관계, 자녀양육, 사회생활 및 지원서비스, 경제활동상태, 국적 취득 여부, 건강상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조사항목들로 구성되었으며 한국에서의 학교 진학의향 및 구직활동 등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통합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과 우울감 등 건강관련 문항이 추가되었다(여성가족부, 2016).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자·귀화자 등 17,109명 중 남성 2,645명을 제외하고, 결혼이민자와 배우자가 혼인상태인 12,569가구를 선택하였다. 또한 결혼이민자의 연령을 19세에서 59세 이하로 제한하였고 출신국은 2016년 법무부 통계연보를 참고해 주요 국가 11개국을 뽑았다.²⁾ 그 다음, 결측값은 제외하였고 국민의 배우자를 만족하는 비자(F-6, F2-1)로 분류했으며 가중치³⁾를 적용하였다. 그리하여 여성결혼이민자 70,829명을 최종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자본과 부부의 언어 능력 정도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결혼이민자의 우울을 매개변수로 설정한다. 더불어 출신국을 분류해서 그에 따른 차이를 보고자 한다.

자료분석은 SPSS 23.0과 AMOS 22.0을 사용하여 측정도구 검증을 위한 내적일관성 분석(Internal Consistency)을 실시했고 연구모형 및 가설 검증을 위해 앤더슨과 거빙(Anderson and Gerbing, 1988)이 제안한 2단계 접근법(Two Step Approach)을 사용했다. 1단계에서 구조방정식을 사용하기 전에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2단

2) 2016년 기준 결혼이민자 출신국 비율은 중국(37.4%), 베트남(27.4%), 일본(8.6%), 필리핀(7.6%), 캄보디아(2.9%), 미국(2.2%), 태국(2.1%), 몽골(1.6%), 우즈베키스탄(1.5%), 기타(8.8%) 순으로 나타났다(법무부, 2017).

3) 가중치는 표본설계 이후, 대법원 자료 입수 등으로 14.11.1일 기준 등록자료 모집단을 보완하여 벤치마크모집단을 작성 후 결혼이민자, 세대, 배우자, 자녀 등 4종으로 구성되었다. 대상자는 설계 가중치, 1차 사후층화, 무응답, 레이킹 비 조정의 단계로 작성되었으며 세대의 경우 대상자 가중치를 세대에 부여한 후, 레이킹 비 조정의 단계로 작성, 배우자와 자녀는 세대 가중치를 배우자, 자녀에 부여한 후 레이킹 비 조정의 단계로 작성되었다(여성가족부, 2016).

계에서 구조모델 추정방식인 경로분석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했다. 또한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기법을 사용하여 확인했고 출신국의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다중집단분석(Multiple Group Analysis)을 실시했다.

즉 SPSS 23.0을 이용하여 결혼이민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삶의 만족도와 주요변수들과의 상관관계를 검증하고 Amos 23.0을 이용하여 가설모형의 적합도 검증과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χ^2 검증, SRMR(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과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등 적합도 통계치 수준을 검증하였다. 카이제곱은 표본크기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고 만약 카이제곱 검증 시 적절한 측정표본크기는 75~200정도며 표본크기가 많은 경우 영가설이 쉽게 기각된다(Kenny et al. 2003). 일반적으로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의 경우 0.05 이하면 좋은 적합도, 0.08이하면 괜찮은 적합도라고 할 수 있다. NEL, RFI, IFI, TLI와 CFI(Comparative Fit Index)는 대략 0.9이상, RMR의 경우 0.05 이하이면 좋은 적합도로 말할 수 있다(Brown and Cudeck 1993).

3. 변수 정의 및 측정

1) 내생변수

삶의 만족도는 "생활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귀하는 현재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의 문항으로 구성한다. '매우 만족한다', '약간 만족한다', '보통이다', '별로 만족하지 못한다',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의 리커트 5점 척도이며 본 연구에서는 원점수를 역점수 처리하였다.

2) 사회적 자본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 하위요인인 네트워크와 사회참여 변수를 각각 사용하였다.

(가) 네트워크

한국인 및 모국인들 중 어려움이 있을 때나 일자리, 자녀 교육과 관련하여 의논할 사람, 여가/취미활동을 함께 할 사람, 몸이 아플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의 여부를 묻는 5문항으로 '있다' 1, '없다' 0으로 합산 점수를 사용하여 한국인 및 모국인과의 사회적 관계 두 측면으로 파악하였다.

(나) 사회참여

“지난 1년(2014. 7. 1. ~ 2015. 6. 30.)동안 다음의 모임이나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습니까?”로 응답자의 자녀 학교의 학부모 모임, 모국인 친구 모임, 지역주민 모임, 종교활동 모임, 민간단체 활동으로 5개 활동에 대한 참여유무를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있었다’를 1, ‘없었다’를 0으로 구분하고 5개의 활동유무의 합산 점수를 활용했다.

3) 부부의 언어 능력

부부간 언어 능력은 배우자가 결혼이민자의 모국어 사용정도와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능력으로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보았다.

(가) 배우자 모국어 사용

배우자의 경우 ‘나는 배우자로부터 배우자 나라 말을 배운다’, ‘나는 배우자 나라의 말을 잘 한다’ 2 문항으로 구성한다.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이 리커트 5점 척도이며 본 연구에서는 역점수 처리하였으며 2개 문항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774로 나타났다.

(나) 한국어 능력

한국어 능력의 경우 결혼이민자에게는 “귀하의 한국어 실력은 어느 정도입니까?”를 물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로 4문항이며 ‘매우 잘한다’, ‘약간 잘한다’, ‘보통이다’, ‘별로 못한다’, ‘전혀 못한다’의 리커트 5점 척도이며 본 연구에서는 역점수 처리하였으며 4개 문항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929로 나타났다.

4) 매개변수

우울변수는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지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꼈습니까?” 문항으로 ‘그런 적 없다’, ‘가끔 느꼈다’, ‘자주 느꼈다’, ‘매우 자주 느꼈다’의 리커트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슬픔 및 절망감을 느낀 빈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5) 통제변수

통제변수는 결혼이민자의 연령, 최종학력, 거주기간, 가구소득으로 설정하였다. 연령은 “귀하는 언제 태어났습니까?”의 문항이며 조사기간 당시 연령이다. 이민자 최종학력은 “귀하는 학교를 어느 수준까지 다녔습니까?”를 물었다. 변수는 ‘미취학’ 0, ‘초등학교’ 1, ‘중학교’ 2, ‘고등학교’ 3, ‘대학교(4년제 미만)’ 4, ‘대학교(4년제 이상)’ 5, ‘대학원 이상’ 6이며 6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거주기간은 최초입국년도를 조사

기간 당시 년도에서 뺀 값이다. ‘5년 미만’ 1, ‘5년~10년 미만’ 2, ‘10년~15년 미만’ 3, ‘15년~20년 미만’ 4, ‘20년 이상’ 5이며 5점 척도로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은 <표 1>과 같다.

<표 1> 변수의 측정

변수		측정
내생 변수	삶의 만족도	‘매우 불만족’에서부터 ‘매우 만족’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
통제 변수	연령	2015년 기준 만 나이
	가구소득	월 평균 가구 소득. 1=100만원 이하, 2=100~200만원 미만, 3=200~300만원 미만, 4=300~400만원 미만, 5=400~500만원 미만, 6=500~600만원 미만, 7=600~700만원 미만, 8=700만원 이상
	최종학력	0=무학, 1=초등학교, 2=중학교, 3=고등학교, 4=2년제 대학교, 5=4년제 대학교, 6=대학원 이상
	거주기간	1=5년 미만, 2=5년~10년 미만, 3=10년~15년 미만, 4=15년~20년 미만, 5=20년 이상
외생 변수	사회적 자본	
	결혼이민자의 사회참여	학부모 모임, 모국인 친구모임, 지역 주민 모임, 종교 모임, 민간단체에 활동했는지 유무를 전혀 없는 경우부터 전부 다 활동했을 경우까지 5점 척도로 구성
	한국인과의 네트워크	상황 별로 함께하는지 여부 문항들의 평균
	출신국이 같은 외국인과의 네트워크	위와 동일
	언어 능력	
	배우자 모국어 능력	모국어 교육, 배우자의 모국어 정도 합계의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
	한국어 능력	4가지 영역(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매우 서툴다’에서부터 ‘매우 잘한다’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
매개 변수	우울	‘그런 적 없다’에서부터 ‘매우 자주 느꼈다’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

IV. 연구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기술통계

1)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 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2>과 같다. 먼저 통제변수들을 살펴보면 연령대는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으로 주로 저개발국가에서 20대 이하의 비중이 다른 출신국 결혼이민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달리 말하면,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출신의 경우 국제결혼의 경로가 지인이나 가족의 소개보다는 결혼중개업체일 경우가 다수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중국과 한국계 중국, 일본, 미국 출신의 결혼이민자는 30,~40대에 몰려있다. 최종학력의 경우 고학력 국가는 일본, 대만, 미국이며 저학력 국가는 캄보디아, 베트남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의 경우 대부분 결혼이민자들은 200~299만원 비중이 높으며 대만과 미국 출신 결혼이민자의 경우 다른 출신국 결혼이민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게 나타났다. 거주기간의 경우 대만,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출신 결혼이민자 집단이 다른 출신국 결혼이민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았고 한국계 중국, 일본, 미국 출신 결혼이민자가 상대적으로 길게 나타났다.

외생변수인 사회적 자본과 부부의 언어 능력 변수를 살펴보자면 사회참여의 경우 모든 출신국 결혼이민자들의 절반 이상이 1개 이상의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고 답했고 일본출신의 결혼이민자가 88.4%로 사회참여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한국계 중국출신의 결혼이민자가 65.6%로 다른 출신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게 나타났다. 모국인 네트워크의 경우 모든 출신국이 절반 정도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고 답했고 미국 결혼이민자가 78.3%로 다른 출신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국인 네트워크는 절반이상의 결혼이민자가 한국인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고 특히 필리핀 결혼이민자가 79.6%로 다른 출신국 결혼이민자보다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배우자의 모국어 능력은 거의 대부분의 출신국이 절반 이상의 ‘하’라고 대답했다. 미국 출신 결혼이민자의 경우는 배우자가 결혼이민자의 모국어를 잘한다고 대답한 비중이 44.7%로 다른 출신국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능력은 문화와 언어권이 한국과 동일한 한국계 중국인의 경우 잘한다고 답한 비율이 77.4%로 다른 출신국에 비해 가장 높았다.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출신의 결혼이민자는 한국어를 잘 구사한다는 비중이 10% 내외로 다른 출신국 결혼이민자에 비해

<표 2> 변수별 빈도

	중국		중국 (한국계)		일본		대만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미국		태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14535	20.5	6682	9.4	4727	6.7	551	0.8	27946	39.5	7911	11.2	3765	5.3	635	0.9	1607	2.3	1283	1.8	1187	1.7	70829	
삶의 만족도	110	0.8	77	1.1	63	1.3	0	0.0	87	0.3	57	0.7	7	0.2	0	0.0	16	1.0	21	1.7	7	0.6	445	
매우 만족	1006	6.9	212	3.2	514	10.9	25	4.6	1146	4.1	541	6.8	150	4.0	14	2.1	70	4.3	98	7.6	63	5.3	3839	
약간 만족	4216	29.0	1908	28.6	1542	32.6	59	10.6	8879	31.8	1715	21.7	1286	34.1	105	16.6	487	30.3	305	23.8	262	22.0	20765	
보통	5127	35.3	2253	33.7	1878	39.7	310	56.2	8732	31.2	2939	37.2	1189	31.6	216	34.0	580	36.1	499	38.9	431	36.3	24154	
약간 만족	4075	28.0	2232	33.4	730	15.4	157	28.6	9102	32.6	2658	33.6	1133	30.1	300	47.2	455	28.3	359	28.0	425	35.8	21626	
매우 만족																								
연령	3585	24.7	455	6.8	325	6.9	85	15.4	19919	71.3	4552	57.5	2808	74.6	218	34.3	293	18.2	282	22.0	541	45.5	33063	
20대 이하	5538	38.1	2062	30.9	2002	42.4	339	61.6	6727	24.1	2798	35.4	922	24.5	311	48.9	750	46.7	592	46.2	473	39.8	22513	
30대	3963	27.3	2208	33.0	1747	37.0	118	21.4	1182	4.2	485	6.1	26	0.7	67	10.5	483	30.0	331	25.8	133	11.2	10741	
40대	1449	10.0	1956	29.3	652	13.8	9	1.6	118	0.4	76	1.0	9	0.2	40	6.3	82	5.1	78	6.1	41	3.4	4512	
50대																								
학력	1060	7.3	475	7.1	44	0.9	0	0.0	3855	13.8	189	2.4	852	22.6	0	0.0	76	4.7	22	1.7	25	2.1	6598	
초졸 이하	2962	20.4	1676	25.1	41	0.9	0	0.0	9859	35.3	407	5.1	1472	39.1	0	0.0	203	12.6	29	2.3	107	9.0	16756	
중졸	5862	40.3	3131	46.9	1458	30.8	57	10.3	12012	43.0	3481	44.0	1286	34.2	12	1.8	661	41.1	518	40.4	565	47.6	29043	
고졸	4057	27.9	1324	19.8	2999	63.4	406	73.6	2141	7.7	3779	47.8	155	4.1	502	79.0	626	39.0	666	51.9	483	40.7	17136	
대졸	594	4.1	76	1.1	186	3.9	88	16.1	79	0.3	55	0.7	0	1.8	122	19.2	41	2.5	48	3.7	7	0.6	1297	
대졸 이상																								
가구소득	511	3.5	95	1.4	201	4.3	17	3.2	1146	4.1	316	4.0	181	4.8	0	4.3	43	2.7	34	2.6	14	1.2	2559	
100만원 이하	2525	17.4	1081	16.2	815	17.2	55	9.9	6849	24.5	1631	20.6	866	23.0	27	14.7	293	18.2	322	25.1	221	18.6	14684	
100~199만원	4956	34.1	1991	29.8	1618	34.2	144	26.2	11098	39.7	3352	42.4	1742	46.3	93	8.5	550	34.2	461	35.9	423	35.6	26428	
200~299만원	3622	24.9	1924	28.8	987	20.9	81	14.7	5691	20.4	1667	21.1	680	18.1	54	30.0	453	28.2	277	21.6	224	18.9	15659	
300~399만원	1607	11.1	967	14.5	530	11.2	78	14.2	1848	6.6	683	8.6	172	4.6	191	13.4	153	9.5	169	13.2	185	15.6	6583	
400~499만원	732	5.0	496	7.4	408	8.6	104	18.8	922	3.3	111	1.4	66	1.8	85	16.4	45	2.8	13	1.0	78	6.6	3059	
500~599만원	310	2.1	69	1.0	50	1.1	35	6.4	232	0.8	89	1.1	25	0.7	104	12.8	50	3.1	0	0.0	7	0.6	972	
600~699만원	272	1.9	58	0.9	118	2.5	36	6.5	160	0.6	63	0.8	33	0.9	81	0.0	20	1.2	8	0.6	36	3.0	884	
700만원 이상																								

통계 변수

<표 2> 변수별 빈도 (계속)

	중국		중국 (한국계)		일본		대만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미국		태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통계 5년 미만	5505	37.9	902	13.5	1070	22.6	264	47.9	16997	60.8	4258	53.8	2161	57.4	193	30.5	485	30.2	322	25.1	522	44.0	32680	
제 5년~10년 미만	7000	48.2	3357	50.2	1281	27.1	144	26.1	9808	35.1	3131	39.6	1604	42.6	278	43.7	631	39.3	561	43.7	452	38.1	28248	
제 10년~15년 미만	1464	10.1	1579	23.6	824	17.4	63	11.5	942	3.4	370	4.7	0	0.0	0	0.0	343	21.3	283	22.1	164	13.8	6033	
제 15년~20년 미만	463	3.2	672	10.1	961	20.3	45	8.1	146	0.5	140	1.8	0	0.0	41	6.4	136	8.4	108	8.5	49	4.2	2761	
20년 이상	102	0.7	172	2.6	590	12.5	35	6.3	53	0.2	12	0.1	0	0.0	123	19.4	13	0.8	8	0.6	0	0.0	1107	
사회참여																								
있음	4877	33.6	2301	34.4	550	11.6	118	21.4	9344	33.4	1253	15.8	1002	26.6	82	13.0	451	28.1	365	28.4	321	27.1	20664	
없음	9658	66.4	4381	65.6	4177	88.4	433	78.6	18602	66.6	6658	84.2	2764	73.4	553	87.0	1157	71.9	918	71.6	866	72.9	50165	
외국인 네트워크																								
있음	4976	54.0	2575	44.0	1155	34.5	177	43.3	7367	60.4	1615	51.9	1269	55.6	250	21.7	490	43.5	419	51.0	484	47.7	20776	
없음	9559	46.0	4107	56.0	3572	65.5	374	56.7	20580	39.6	6296	48.1	2497	44.4	385	78.3	1117	56.5	864	49.0	703	52.3	50053	
본국인 네트워크																								
있음	7847	34.2	2938	38.5	1629	24.4	238	32.1	16879	26.4	4102	20.4	2092	33.7	138	39.4	700	30.5	654	32.6	566	40.8	37784	
없음	6688	65.8	3743	61.5	3098	75.6	313	67.9	11067	73.6	3808	79.6	1674	66.3	497	60.6	908	69.5	629	67.4	621	59.2	33046	
배우자 교육여부																								
있음	9107	62.7	5025	75.2	2419	51.2	250	45.3	23296	83.4	6173	78.0	3072	81.6	105	16.6	1168	72.7	998	77.8	903	76.1	52517	
없음	3504	24.1	1169	17.5	1380	29.2	202	36.8	3847	13.8	1287	16.3	558	14.8	245	38.6	310	19.3	231	18.0	220	18.5	12953	
어학능력	1924	13.2	488	7.3	927	19.6	99	18.0	803	2.9	450	5.7	135	3.6	284	44.7	129	8.0	54	4.2	64	5.4	5359	
한국어 능력																								
있음	4699	32.3	515	7.7	1184	25.0	171	31.1	9692	34.7	2478	31.3	1628	43.2	205	32.3	731	45.5	298	23.2	319	26.9	21920	
없음	4066	28.0	987	14.8	1966	41.6	248	45.1	14695	52.6	4179	52.8	1662	44.1	132	20.8	683	42.5	535	41.7	483	40.7	29636	
하위	5771	39.7	5180	77.5	1577	33.4	131	23.8	3559	12.7	1254	15.9	475	12.6	298	46.9	193	12.0	450	35.1	385	32.4	19273	
유형																								
그런데 없다	10372	71.4	5070	75.9	3051	64.5	448	81.3	17123	61.3	4220	53.3	2251	59.8	443	69.7	950	59.1	778	60.6	647	54.5	45351	
가깝다	3589	24.7	1227	18.4	1367	28.9	86	15.6	8989	32.2	2717	34.3	1261	33.5	138	21.7	582	36.2	428	33.4	412	34.8	20798	
자주 느꼈다	447	3.1	230	3.4	164	3.5	17	3.1	1711	6.1	853	10.8	222	5.9	41	6.4	54	3.4	62	4.8	114	9.6	3914	
수많은 자주 느꼈다	127	0.9	155	2.3	145	3.1	0	0.0	124	0.4	120	1.5	31	0.8	14	2.2	21	1.3	15	1.2	14	1.2	766	

한국어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매개변수인 우울을 살펴보면 모든 출신국 결혼이민자의 절반이상이 우울을 느끼지 않았다고 답했지만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우울한 적 있다고 대답한 비중이 45%정도로 다른 출신국 결혼이민자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위와 같이 출신국별로 연령, 최종학력, 거주기간, 가구소득, 사회적 자본, 부부의 언어 능력, 우울은 각각 다르게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출신국별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2)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각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 등을 <표 3>에 제시하였다. 먼저, 내생변수인 삶의 만족도의 평균은 약 3.9로 나타났으며 외생변수를 살펴보면 사회적 자본 구성 변수인 사회참여의 평균은 1.08, 모국인 네트워크는 1.14, 한국인 네트워크는 1.14로 나타났다. 달리 말하면 결혼이민자들은 1개 이상의 활동을 하거나 네트워크를 보유하고는 있지만 양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부부의 언어 능력 구성 변수인 배우자 모국어 능력은 2.15,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능력은 3.29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매개변수인 우울은 1.44의 평균을 보이고 있다. 주요 통제 변수들을 살펴보면 연령은 평균 32.50세로 나타났으며, 최종학력은 3, 가구소득은 3.37, 거주기간은 1.75로 나타났다.

<표 3> 주요변수 평균과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왜도 (표준오차)	첨도 (표준오차)
삶의 만족도	1	5	3.88	.93	-.37(.01)	-.60(.02)
연령	19	59	32.50	8.88	.87(.01)	-.04(.02)
거주기간	1	5	1.75	0.88	1.40(.01)	0.01(.02)
최종학력	0	6	3.00	1.22	.27(.01)	-.15(.02)
가구소득	1	8	3.37	1.31	.92(.01)	1.27(.02)
사회참여	0	5	1.08	.97	1.02(.01)	1.27(.02)
모국인 네트워크	0	5	1.14	1.52	1.17(.01)	.14(.02)
한국인 네트워크	0	5	2.00	1.72	.28(.01)	-1.26(.02)
배우자 모국어 능력	1	5	2.15	.99	.75(.01)	.06(.02)
한국어 능력	1	5	3.29	.92	.32(.01)	-.56(.02)
우울	1	4	1.44	.65	1.44(.01)	1.79(.02)

(N=70827)

경로분석 모형에서 분석 가능한 정상분포조건은 왜도<2, 첨도<4이며 이 기준을 초과했을 때 분석에 대한 왜곡이 있을 수 있다(Hong, Malik and Lee, 2003). 본 연구 모형의 왜도와 첨도를 살펴보았을 때 둘 다 기준에 충족하고 있으며 경로모형을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

2. 주요 변수 상관관계 분석

이 연구의 삶의 만족도 변수와 주요 변수들과의 상관관계를 상관분석을 통해 검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결과를 살펴보면 삶의 만족도 변수에 대해 모든 변수와의 관계가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의 삶의 만족도는 거주기간과 연령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관계를 보였으며 결혼이민자의 최종학력과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외생변수들을 살펴보면 사회적 자본 변수들 모두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또한 배우자가 결혼이민자의 언어를 잘할수록 결혼이민자가 한국어 능력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이다. 마지막으로 우울 수준이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삶의 만족도 변수와 우울($r=-.340$), 가구소득 ($r=.150$) 거주기간($r=-.127$), 결혼이민자의 연령($r=-.104$), 한국어 능력($r=.100$) 등의 순으로 상관관계를 갖는 것을 볼 수 있다.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삶의 만족도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

변 수	(1)	(2)	(3)	(4)	(5)	(6)	(7)	(8)	(9)	(10)	(11)
삶의 만족도	1										
연령	-.104**	1									
최종학력	.070**	.037**	1								
거주기간	-.127**	.519**	.088**	1							
가구소득	.150**	.039**	.194**	.057**	1						
사회참여	.021**	.063**	.147**	.174**	-.003	1					
모국인 네트워크	.066**	.116**	.157**	.188**	.113**	.208**	1				
한국인 네트워크	.017**	-.069**	.018**	-.029**	-.009*	.213**	-.228**	1			
배우자 모국어 능력	.097**	.002	.260**	.014**	.106**	.066**	.108**	.017**	1		
한국어 능력	.100**	.178**	.202**	.309**	.123**	.106**	.253**	-.021**	.048**	1	
우울	-.340**	-.062**	-.003	-.001	-.092**	.021**	-.024**	-.030**	-.055**	-.071**	1

* $p<0.05$ ** $p<0.01$ *** $p<0.001$

3.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모형적합도 지수를 일부분을 제외하고 대부분 적합도 지수가 기준에 만족했다. 또한 모든 변수의 요인부하량은 유의수준 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표준화 요인부하량은 0.6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집중타당성의 기준인 0.4 이상을 충족했다.

수렴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개념신뢰도와 분산추출지수(AVE)를 살펴보면 한국어 능력은 개념신뢰도 .929(≥ 0.7), 분산추출지수 .765(≥ 0.5), 배우자 모국어 능력은 개념신뢰도 .762(≥ 0.7), 분산추출지수 .623(≥ 0.5)로 수렴타당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별타당성은 분산추출지수 제곱근 값이 상관계수 값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통해 판별한다(Fornell et al. 1981). 한국어 능력(.874), 배우자 모국어 능력(.789)의 분산추출지수(AVE) 제곱근 값이 상관계수 값보다 크기 때문에 판별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측정변수들이 잠재변수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확인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 결과

잠재 변수	관찰 변수	요인 부하량	표준화 요인 부하량	표준 오차	t값	개념 신뢰도	AVE	상관 계수
한국어 능력	말하기	.941	.901	-	-	.929	.765	.076
	듣기	.931	.910	.003	374.540			
	읽기	.974	.891	.002	395.953			
	쓰기	1.000	.863	.002	385.356			
배우자 모국어 능력	모국어1	.752	.657	.005	142.743	.762	.623	
	모국어2	1.000	.964	-	-			

$$X^2=27918.629 \text{ GFI}=.870 \text{ TLI}=.856 \text{ CFI}=.904 \text{ NFI}=.904 \text{ IFI}=.904$$

4. 연구모형 분석

1) 연구모형의 가설 검증 및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선행이론 및 경험적 연구의 고찰을 통해서 사회적 자본과 부부의 언어 능력 정도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경로에 대한 연구모형을 구축하였다. 이 연구모형이 실제 경험적 자료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서 구조모형을 분석해보았고 결과는 <표 6>에서 제시한다. χ^2 의 경우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지만 이 통계량은 표본크기 민감하며 영가설이 엄격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적합도 지수를 살펴봐야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 분석에서 검토한 적합도 지수는 적합한 수준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표 6> 연구모형의 적합도

	χ^2	AGFI	GFI	FMIN	IFI	RMR	CFI	RMSEA
연구모형	890.503 (df=4, p=.000)	.963	.989	.013	.989	.042	.987	.056 (.053~.059)

<표 7>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B	β	S. E	C. R
사회참여→삶의 만족도	.030	.031	.004	8.415***
모국인 네트워크→삶의 만족도	.001	.003	.002	.712
한국인 네트워크→삶의 만족도	.025	.041	.002	10.880***
배우자 모국어 능력→삶의 만족도	.051	.054	.003	15.229***
한국어능력→삶의 만족도	.102	.102	.004	27.122***
연령→삶의 만족도	-.008	-.083	.000	-20.659***
학력→삶의 만족도	.014	.017	.003	4.731***
거주기간→삶의 만족도	-.144	-.137	.004	-32.656***
가구소득→삶의 만족도	.074	.106	.002	29.980***
사회참여→우울	.030	.045	.003	11.428***
모국인 네트워크→우울	-.017	-.045	.002	-11.221***
한국인 네트워크→우울	-.009	-.021	.002	-5.021***
배우자 모국어 능력→우울	-.034	-.051	.002	-13.616***
한국어능력→우울	-.048	-.069	.003	-17.715***
우울→삶의 만족도	-.464	-.325	.005	-94.544***

*p<.05 **p<.01 ***p<.0001

구조모형의 적합성 검증을 확인함에 따라 연구모형의 경로계수를 이용해 가설검증을 하고자 한다.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사회적 자본이 삶의 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관계를 지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참여 경로계수($B=.030$, $\beta=.031$, $t=8.415$, $p=.000$)와 한국인 네트워크 경로계수($B=.025$, $\beta=.041$, $t=10.880$, $p=.000$)는 $p<0.001$ 수준에서 유의하며 모국인 네트워크는 직접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즉, 사회적 자본 중 사회참여와 한국인 네트워크만 삶의 만족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주었으며 <가설1-1>은 부분 채택됐다.

부부의 언어 능력이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 관한 가설검증 결과 결혼이민자의 배우자 모국어 능력의 경로계수는($B=.051$, $\beta=.054$, $t=15.229$, $p=.000$)이며 한국어 능력의 경로계수는($B=.102$, $\beta=.102$, $t=27.122$, $p=.000$)로 나타났기 때문에 <가설 3-1>을 채택한다. 즉, 결혼이민자는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할 때 삶의 만족도가 올라간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자본과 부부의 언어 능력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검증은 다음과 같다. 사회참여 경로계수는($B=.030$, $\beta=.045$, $t=11.428$, $p=.000$), 모국인 네트워크 경로계수는($B=-.017$, $\beta=-.045$, $t=-11.221$, $p=.000$), 한국인 네트워크 경로계수는($B=-.009$, $\beta=-.021$, $t=-5.021$, $p=.000$)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는 사회참여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네트워크 연결이 많아질수록 우울을 낮추는 경향을 보인다. 한편 배우자 모국어 능력은($B=-.034$, $\beta=-.051$, $t=-13.616$, $p=.000$)으로 나타났고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능력은($B=-.048$, $\beta=-.069$, $t=-17.715$, $p=.000$)으로 나타났으며 <가설 2-1>과 <가설 4-1>은 채택되었다.

마지막으로 우울과 삶의 만족도에 대한 경로계수는($B=-.464$, $\beta=-.325$, $t=-94.544$, $p=.000$) $p<0.00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5-1> 채택되었다.

한편 통제변수가 결혼이민자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학력과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연령이 적을수록 삶에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매개모형의 직·간접 효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
			B	β	
사회참여	우울	.045**	.000	.000	.045
	삶의 만족도	.031*	-.014	-.015	.016
모국인 네트워크	우울	-.045*	.000	.000	-.045
	삶의 만족도	.003	.008	.015	.017
한국인 네트워크	우울	-.021**	.000	.000	-.021
	삶의 만족도	.041**	.004	.007	.048
배우자 모국어 능력	우울	-.051**	.000	.000	-.051
	삶의 만족도	.054**	.016	.017	.071
한국어 능력	우울	-.069**	.000	.000	-.069
	삶의 만족도	.102*	.022	.022	.124
우울	삶의 만족도	-.326*	.000	.000	-.325

<표 9>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결과

경로	β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사회참여→우울→삶의 만족도	-.015**	-.017	-.013
모국인 네트워크→우울→삶의 만족도	.015*	.013	.017
한국인 네트워크→우울→삶의 만족도	.007**	.005	.009
배우자 모국어 능력→우울→삶의 만족도	.017*	.014	.019
한국어 능력→우울→삶의 만족도	.022**	.020	.025

* $p < .05$ ** $p < .01$ *** $p < .001$

그 다음,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자본과 부부의 언어 능력 정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살펴보고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통해 변수들 간의 관계에서 우울이 갖는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트스트래핑 반복 추정회수는 200번으로 설정했고, 95% 신뢰구간에서 결과를 도출했다. 분석자료를 공분산행렬로 변형하여 사용했기 때문에 몬테카를로(Monte Carlo) 방법을 사용했고 편향수정 백분율법(Bise Corrected Percentile Method)을 통해 유의성을 확인해보았다.

<표 8>은 경로모델의 효과계수를 나타낸 결과다.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자본 중 사회참여($B = -.014$, $\beta = -.015$), 모국인 네트워크($B = .008$, $\beta = .015$), 한국인 네트워크($B = .004$, $\beta = .007$)의 간접효과 계수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결혼이민자의 사회참여

가 많을수록 우울을 높이며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네트워크의 경우 한국인과 모국인 네트워크 모두 우울을 낮추고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모국인 네트워크는 완전매개로 나타났으며 한국인 네트워크보다 표준화계수가 약 2배 정도 커서 전체적으로 결혼이민자는 한국인 네트워크보다 모국인 네트워크가 삶의 만족도를 더 높인다. 이 결과는 한국인보다 모국인과 형성된 네트워크에서 결혼이민자에게 우울을 낮춰주는 정서적인 지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결혼이민자 부부의 언어 능력의 간접효과를 살펴보면 배우자 모국어 능력($B=.016, \beta=.017$), 한국어 능력($B=.022, \beta=.022$)이며 결혼이민자는 배우자 모국어 능력수준의 높을 경우와 자신의 한국어 능력이 높을 때 우울을 낮추고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나타났다.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한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한 결과(표 9) 모든 독립변수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출신국 집단 간 다중집단분석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이 결혼이민자의 출신국에 따라 경로계수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집단분석은 둘 이상의 집단을 분석하여 모델 간 경로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판단할 때 사용되는 분석기법이다(우중필, 2012).

<표 10> 연구모형에 대한 출신국집단의 모형적합도 비교

	X^2	CMIN/DF	GFI	AGFI	NFI	IFI	CFI	RMSEA
자유모형	1296.456 (df=44, p=.000)	29.465	.997	.946	.982	.982	.982	.020 (.019-.021)
제약모형	4224.736 (df=194, p=.000)	21.777	.990	.961	.940	.943	.942	.017 (.017-.018)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구조동일성(structural invariance)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출신국 간 구조동일성 검증하였다. 일반적으로 제약을 하지 않은 자유모델과 제약모델 간 χ^2 차이를 통해서 검증하게 되는데 청과 렌스볼드(Cheung and Rensvold, 2002)는 χ^2 차이는 표본 크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표본 크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적합도 통계치인 CFI 차이가 집단을 비교하는데 더 적절하다고 제안했다(Maanse and John, 2008). 모형을 비교할 때 CFI 차이가 0.01을 초과하지 않으면 구조동일성이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과를 살펴보면, 자유모형($\chi^2=1296.456$, $df=44$, $p=.000$, $GFI=.997$, $IFI=.982$, $CFI=.982$, $RMSEA=.020$)과 제약모형($\chi^2=4224.736$, $df=194$, $p=.000$, $GFI=.990$, $IFI=.943$, $CFI=.942$, $RMSEA=.017$)을 비교해 볼 때 자유모형이 제약모형에 비해 적합도 지수가 비교적 좋게 나타났다. 또한 χ^2 값의 차이와 CFI 값의 차이를 비교해볼 때, χ^2 의 차이 검증을 살펴보면 $\chi^2=2928.28(df=\Delta 150)$ 는 0.01 유의수준에서 유의하며, CFI값의 차이는 .04로 .01보다 크므로 구조동일성이 성립되지 않았다.

따라서 다중집단분석결과 출신국별 구조모형이 동일하지 않다고 나타났으며 출신국별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간접효과와 직접효과의 경로의 차이가 보였기 때문에 <가설 6-1>은 채택됐다.

본 연구에서 다중집단분석을 진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집단별로 따로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따라서 출신국별로 개별표본분석을 실시하여 각 국가별 최종모형을 살펴보았다.

<표 11> 출신국별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중국	중국 (한국계)	베트남	대만	일본	캄보디아	몽골	필리핀	태국	우즈베키스탄	미국
	B(β)	B(β)	B(β)	B(β)	B(β)	B(β)	B(β)	B(β)	B(β)	B(β)	B(β)
사회참여 →우울	.052*** (.077)	.141*** (.194)	-.019*** (-.024)	.071*** (.142)	.000 (.000)	-.023 (-.031)	-.068*** (-.113)	.017* (.025)	.008 (.013)	-.019 (-.027)	-.036 (-.049)
모국인 네트워크 →우울	-.025*** (-.075)	-.040*** (-.105)	-.008** (-.020)	-.021* (-.084)	-.076*** (-.187)	-.037*** (-.091)	.014 (.038)	.023*** (.053)	-.008 (-.022)	-.016 (-.035)	-.090*** (-.233)
한국인 네트워크 →우울	-.023*** (-.065)	-.005 (-.012)	.009** (.018)	.077*** (.292)	-.036*** (-.092)	-.018* (-.037)	.037** (.086)	-.007 (-.013)	.023* (.053)	-.019 (-.038)	-.109*** (-.276)
배우자 모국어 능력 →우울	-.037*** (-.070)	-.023** (-.035)	-.040*** (-.052)	-.096*** (-.211)	-.027** (-.043)	.085*** (.111)	-.075*** (-.106)	-.020* (-.026)	-.004 (-.007)	-.136*** (-.171)	-.121*** (-.166)
한국어능력 →우울	-.005 (-.010)	-.067*** (-.090)	-.006 (-.007)	-.010 (-.019)	-.060*** (-.081)	.000 (-.001)	-.163*** (-.212)	-.033** (-.031)	-.098*** (-.113)	-.013 (-.015)	-.137*** (-.244)
사회참여 →삶의 만족도	.006 (.006)	.089*** (.089)	.026*** (.023)	-.067 (-.086)	.027* (.037)	.037* (.037)	.015 (.016)	.027** (.030)	.153*** (.183)	.118*** (.131)	-.066* (-.079)
모국인 네트워크 →삶의 만족도	-.001 (-.002)	-.060*** (-.114)	.002 (.004)	-.033* (-.084)	.011 (.020)	.016 (.028)	.051*** (.090)	.045*** (.079)	-.005 (-.009)	-.017 (-.029)	-.055** (-.126)
한국인 네트워크 →삶의 만족도	.031*** (.054)	.024*** (.046)	.014** (.019)	.096*** (.233)	.042*** (.081)	.008 (.012)	.069*** (.107)	.074*** (.111)	-.006 (-.009)	-.020 (-.031)	.117*** (.261)
배우자 모국어 능력 →삶의 만족도	.057*** (.066)	.070*** (.077)	.100*** (.090)	.075* (.105)	.063*** (.078)	.038* (.036)	.191*** (.180)	.016 (.016)	-.021 (-.024)	.143*** (.139)	.370*** (.446)
한국어능력 →삶의 만족도	.101*** (.115)	.120*** (.117)	.091*** (.070)	.171*** (-.208)	.124*** (.127)	.149*** (.119)	-.066* (-.057)	.149** (.109)	.048 (.038)	.073* (.066)	-.013 (-.020)
우울 →삶의 만족도	-.559*** (-.347)	-.624*** (-.451)	-.446*** (-.309)	-.387*** (-.248)	-.472*** (-.363)	-.429*** (-.311)	-.743*** (-.495)	-.349*** (-.273)	-.465*** (-.318)	-.497*** (-.385)	-.244*** (-.215)

*p<.05 **p<0.01 ***p<0.001

3) 출신국별 경로계수 분석

출신국 집단 간 구조모형이 동일하지 않음이 검증되었기 때문에 각각 독립집단의 경로계수에 대한 유의성을 살펴보았는데, 출신국 집단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국의 경우 결혼이민자의 사회참여($B=.052, \beta=.077, p=.000$)와 모국인 네트워크($B=-.025, \beta=-.075, p=.000$)가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삶의 만족도의 경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사회참여가 많을 경우 더 우울하고 모국인 네트워크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네트워크와 배우자 모국어 실력은 우울과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한국어 능력($B=.101, \beta=.115, p=.000$)의 경우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한국인 네트워크와 배우자 모국어 능력은 부분매개로 사회참여와 모국인 네트워크는 완전매개로 나타났다.

한국계 중국의 경우 결혼이민자의 사회참여와 모국인 네트워크, 배우자 모국어 능력, 한국어 능력이 우울과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한편 한국인 네트워크($B=.024, \beta=.046, p=.000$)의 경우 삶의 만족도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사회참여는 우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모국인 네트워크와 배우자 모국어 능력, 한국어 능력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국인 네트워크 경우 삶의 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사회참여와 모국인 네트워크, 배우자 모국어 능력, 한국어 능력은 부분매개로 나타났다.

베트남의 경우 결혼이민자의 사회참여와 모국인 네트워크, 한국인 네트워크, 배우자 모국어 능력이 우울과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한국어 능력($B=.091, \beta=.070, p=.000$)의 경우 삶의 만족도에서만, 모국인 네트워크($B=-.009, \beta=-.018, p=.002$)는 우울에만 영향을 미쳤다.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의 경우 사회적 자본과 배우자 모국어 능력이 높을 경우 우울이 더 낮아지며 사회참여가 많을수록, 한국인 네트워크가 높을수록 배우자가 결혼이민자의 모국어 능력이 유창할수록, 한국어가 더 능숙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참여, 한국인 네트워크, 배우자 모국어 능력은 부분매개로 네트워크와 모국인 네트워크는 완전매개로 나타났다.

대만의 경우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능력($B=-.171, \beta=-.208, p=.000$)이 삶의 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우울의 경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사회참여($B=.071, \beta=.142, p=.000$)는 우울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참여와 한국인

네트워크가 높을수록 더 우울하고 모국인 네트워크와 한국어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참여는 완전매개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한국인 네트워크, 배우자 모국어 능력, 한국어 능력은 우울과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모국인 네트워크는($B=-.076$, $\beta=.187$, $p=.000$)는 우울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한국인 네트워크, 배우자 모국어 능력, 한국어 능력은 부분매개로 모국인 네트워크의 경우 완전매개로 나타났다.

캄보디아의 경우 결혼이민자의 배우자 모국어 능력이 우울과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한국인 네트워크($B=-.018$, $\beta=-.037$, $p=.028$)와 모국인 네트워크($B=-.037$, $\beta=-.091$, $p=.000$)는 경우 우울에만 영향을 미쳤으며 배우자 모국어 수준이 높을수록 더 우울하다고 나타났다. 배우자 모국어 능력은 부분매개로, 모국인 네트워크와 한국인 네트워크는 완전매개로 나타났다.

몽골의 경우 한국인 네트워크와 배우자 모국어 능력, 한국어 능력은 우울과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사회참여($B=-.068$, $\beta=-.113$, $p=.000$)는 우울에서만 유의했고 모국인 네트워크($B=.051$, $\beta=.090$, $p=.000$)는 삶의 만족도에서만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한국인 네트워크 수준이 높을수록 더 우울하고 한국어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아졌다. 또한 한국인 네트워크와 배우자의 모국어 능력, 한국어 능력은 부분매개로 사회참여는 완전매개로 나타났다.

필리핀의 경우 결혼이민자의 사회참여, 모국인 네트워크, 배우자 모국어 능력, 한국어 능력이 우울과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배우자 모국어 능력($B=.020$, $\beta=-.026$, $p=.023$)은 우울에서만, 한국인 네트워크($B=.074$, $\beta=.111$, $p=.000$)는 삶의 만족도에서만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사회참여가 많을수록 모국인 네트워크 수준이 높을수록 더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참여, 모국인 네트워크와 배우자 모국어 능력, 한국어 능력은 부분매개로 배우자 모국어 능력은 완전매개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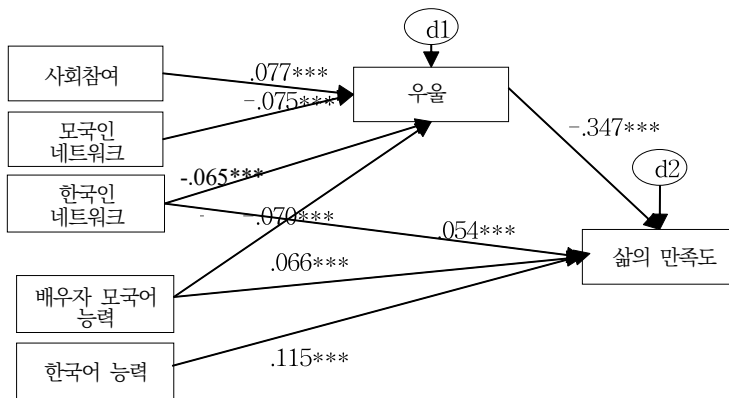
태국의 경우 결혼이민자의 한국인 네트워크($B=.023$, $\beta=.053$, $p=.045$)와 한국어 능력($B=-.098$, $\beta=-.113$, $p=.000$)이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삶의 만족도의 경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사회참여($B=.153$, $\beta=.183$, $p=.000$)는 삶의 만족도에서만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태국 출신 결혼이민자는 한국인 네트워크가 많을 경우 더 우울하고 한국어 능력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인 네트워크와

한국어 능력은 완전매개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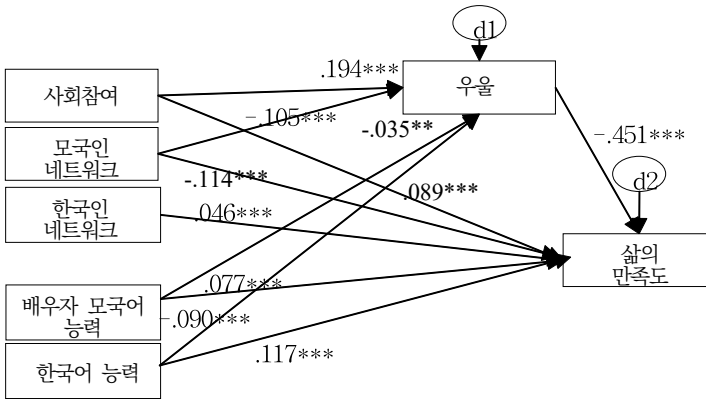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결혼이민자의 배우자 모국어 능력은 우울과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사회참여($B=.118$, $\beta=.131$, $p=.000$)와 한국어능력($B=.093$, $\beta=.066$, $p=.012$)은 삶의 만족도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배우자 모국어 능력은 부분매개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결혼이민자의 모국인 네트워크, 한국인 네트워크, 배우자 모국어 능력이 우울과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한국어 능력($B=-.137$, $\beta=-.244$, $p=.000$)은 우울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모국인 네트워크가 많을 경우 우울감이 낮아지지만 삶의 만족도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국인 네트워크, 한국인 네트워크와 배우자 모국어 능력은 부분매개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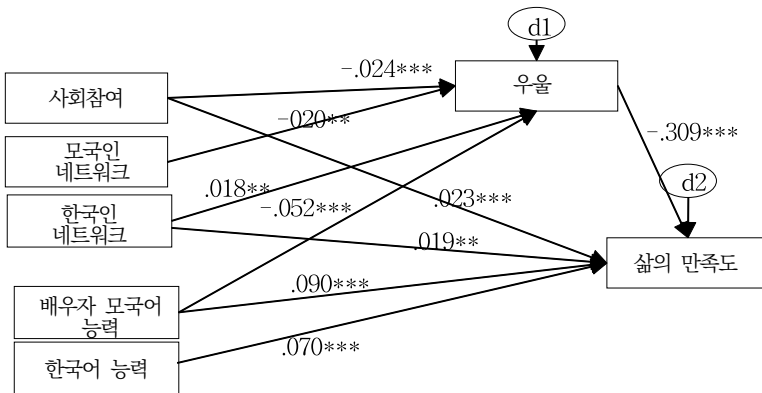
출신국 집단의 구조모형을 각 개별집단별로 분석한 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3]와 같다. 이 결과는 [그림 2]의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로에 대해 출신국 집단 간 차이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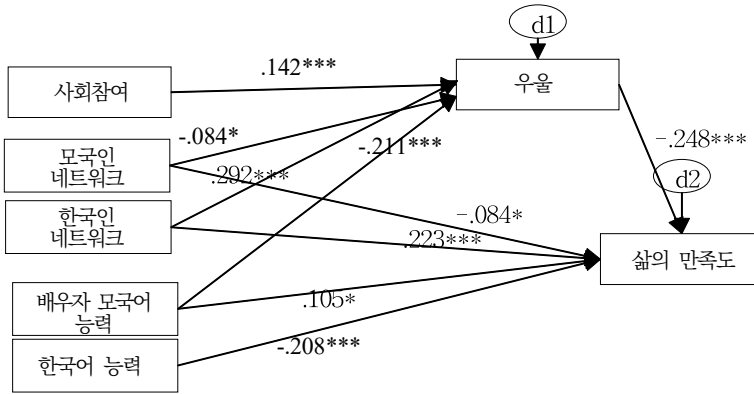
(가) 중국(비한국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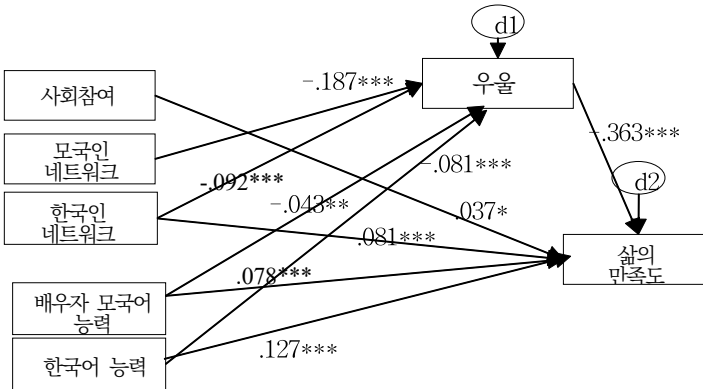
(가) 중국(한국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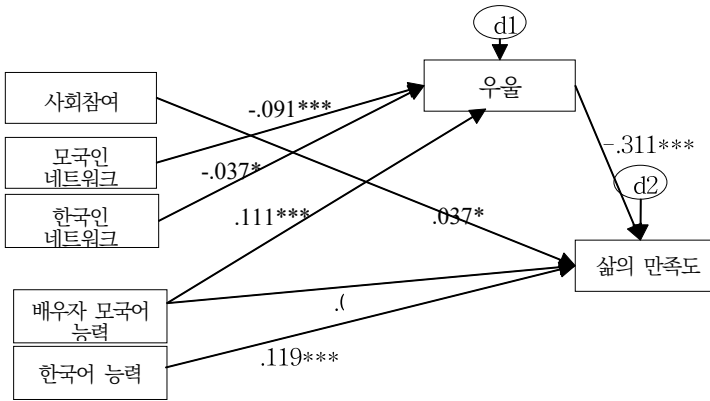
(다) 베트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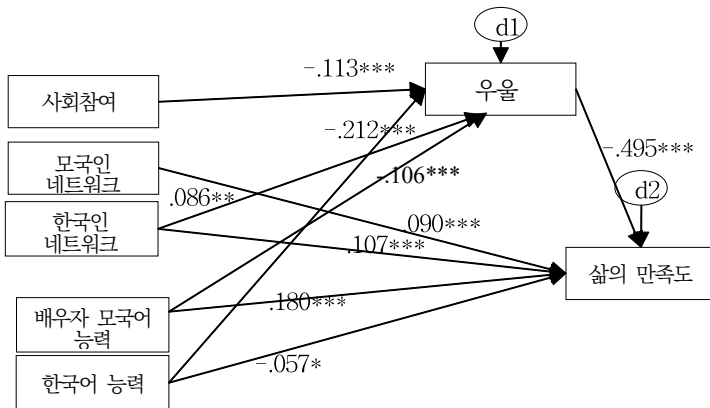
(라) 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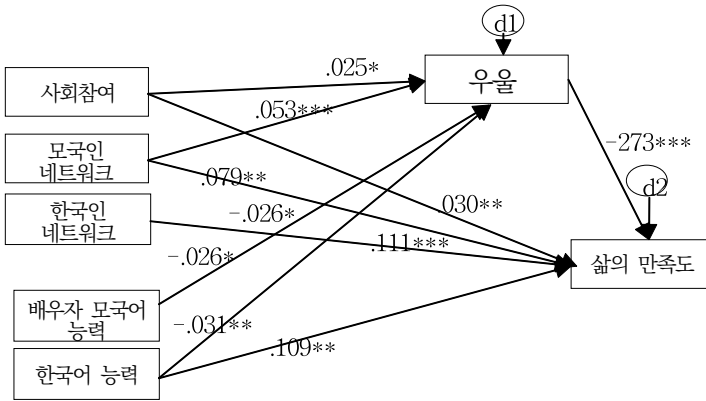
(마)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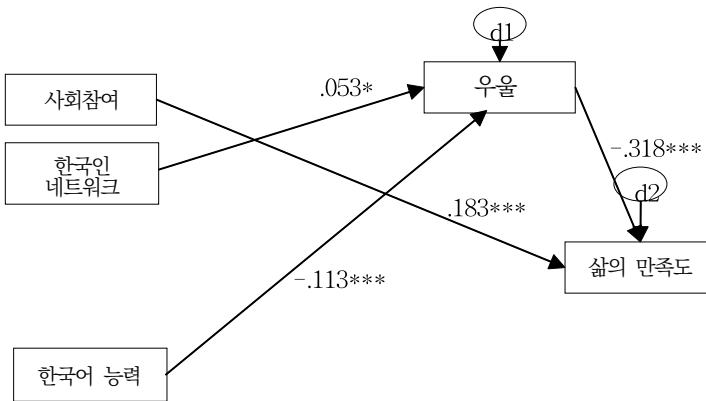
(바) 캄보디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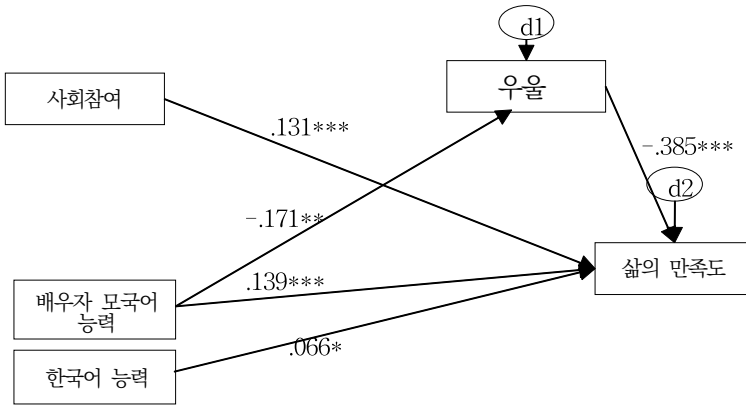
(사) 몽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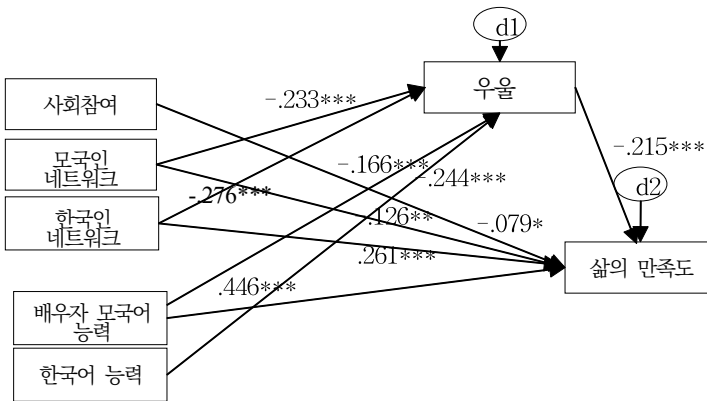
(아) 필리핀



(자) 태국



(차) 우즈베키스탄



(카) 미국

<표 12> 출신국별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결과

경로	집단 간 경로계수(표준화 계수)									
	중국	중국 (한국계)	대만	일본	캄보디아	몽골	미국	베트남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사회참여→우울→삶의 만족도	-.027**	-.088**	-.035**		.010*	.056**				
모국인 네트워크→우울 →삶의 만족도	.026**	.048**		.068*	.028*		.050*		-.014**	
한국인 네트워크→우울 →삶의 만족도	.023**		-.072*	.033**	.012*	-.042*	.059*			-.017*
배우자 모국어 능력→우울 →삶의 만족도	.024*	.016**	.052*	.015*	-.035**	.052*	.036**	.016*		.066*
한국어 능력→우울 →삶의 만족도		.041*		.029*		.105*	.053**			.036**

*p<.05 **p<.01 ***p<.001

(표준화계수가 .010 미만이거나 유의하지 않은 계수는 생략)

4) 출신국별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결과

<표 12>는 출신국별 구조모형을 토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가 0.010이상 일 경우만 나타낸 결과다.

사회적 자본 변수 중심으로 살펴보면, 사회참여의 경우 사회참여가 많아질수록 우울이 높아지고 삶의 만족도가 내려가는 부의 방향의 값을 나타내는 출신국은 한국과 문화적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은 중국($\beta = -.027$ $p=.009$), 한국계 중국($\beta = -.088$, $p=.005$), 대만($\beta = -.035$, $p=.004$) 출신의 결혼이민자 집단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참여가 많을수록 우울이 낮아지고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는 정의 방향의 값을 갖는 국가는 캄보디아와($\beta = .010$, $p=.049$) 몽골($\beta = .056$, $p=.008$) 출신의 결혼이민자 집단이다.

모국인 네트워크의 경우 중국($\beta = .026$, $p=.005$), 한국계 중국($\beta = .048$, $p=.006$), 일본($\beta = .068$, $p=.007$), 캄보디아($\beta = .028$, $p=.025$), 미국($\beta = .050$, $p=.016$) 출신의 결혼이민자는 모국인 네트워크를 많이 보유할수록 우울이 낮아지고 삶의 만족도가 올라간다고 나타났다. 필리핀의 경우($\beta = -.014$, $p=.004$) 부의 방향을 나타냈다.

한국인 네트워크의 경우 한국인 네트워크를 많이 보유할수록 우울이 낮아지고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는 정의 방향의 값을 갖는 출신국은 중국($\beta = .023$, $p=.007$), 일본($\beta = .033$, $p=.006$), 캄보디아($\beta = .012$, $p=.039$), 미국($\beta = .059$, $p=.015$)출신의 결혼

이민자 집단이며 부의 방향을 갖는 출신국은 대만($\beta = -.072$, $p = .007$), 몽골($\beta = -.042$, $p = .023$), 태국($\beta = -.017$, $p = .028$) 출신의 결혼이민자 집단으로 나타났다.

우즈베키스탄, 베트남의 경우 사회적 자본의 유의하지 않거나 매우 약하게 나타났는데 두 출신국의 결혼이민자는 거주기간이 짧고 연령이 낮은 공통점을 가졌다. 이는 사회적 자본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거나 다른 지원이 필요할 수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다른 변수들을 살펴보면, 베트남의 경우 배우자 모국어 능력($\beta = .016$, $p = .021$)이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한국어 능력($\beta = .066$, $p = .013$)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V.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국내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자본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결혼이민자의 우울이 사회적 자본과 부부의 언어 능력 정도와 그리고 결혼이민자가 지각하는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에 대해 구조모델 추정방식인 경로분석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했다. 더불어 결혼이민자의 출신국에 따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경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자본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 관한 가설검증 결과, 모국인 네트워크를 제외한 사회참여, 한국인 네트워크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가설 1-1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자본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이 결과는 사회참여활동이 활발하거나 한국인 네트워크를 많이 보유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올라간다는 양순미 외(2009)와 이민아(2010)의 연구와 동일하게 나타난 반면 모국인 네트워크가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용균(2007)의 연구와 상반되는 결과를 보였다.

둘째, 사회적 자본과 우울 간의 관계에 관한 가설검증 결과, 사회참여, 모국인 네트워크, 한국인 네트워크가 모두 우울에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사회참여 수준이 높아질수록 우울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모국인과 한국인 네트워크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우울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2-1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자본은 우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셋째, 결혼이민자 부부의 언어 능력 정도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 관한 가설검증 결과, 배우자 모국어 능력, 한국어 능력 모두 삶의 만족도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냈다. 따라서 <가설 3-1 결혼이민자부부의 언어 능력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이는 이선영(2017)의 논의와 같이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능력 실력과 더불어 배우자의 모국어 능력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 수준을 높일 수 있으며 이주민의 문화를 존중하고 수용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넷째, 결혼이민자 부부의 언어 능력 정도와 삶의 만족도의 가설검증결과 배우자 모국어 능력, 한국어 능력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가설4-1 결혼이민자부부의 언어 능력은 우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됐다. 수용국의 언어의 습득은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학습을 용이하게 하며 배우자가 결혼이민자의 모국어 능력 수준이 높을수록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함으로써 삶의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다섯째, 우울과 삶의 만족도 간의 경로계수는 모든 출신국의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우울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5-1 결혼이민자부부의 우울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따라서 박은희 외(2012), 김현실 외(2011)의 연구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고, 결혼이민자의 우울 수준이 낮을 경우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

여섯째, 다중집단분석결과 출신국별로 사회적 자본과 부부의 언어 능력 정도, 우울,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경로차이를 보였고 <가설 6-1 출신국별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간접효과와 직접효과의 경로의 차이가 있다>는 채택되었다. 대부분의 결혼이민자들은 사회참여, 한국인 네트워크, 모국인 네트워크가 높을수록 우울을 낮추고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지만 일부 출신국 결혼이민자는 사회적 자본이 높을수록 우울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부의 언어 능력 또한 출신국별로 상이한 차이를 보였다.

이상 가설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이론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자본과 부부의 언어 능력, 우울, 삶의 만족도 관계에 대한 분석을 전국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시했기 때문에 대표성이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2016년 기준 결혼이민자 출신국 중 약 90%를 차지하

는 출신국을 모두 분석함으로써 집단 간 차이를 도출해냈다. 즉, 기존연구에서는 결혼이민자 연구에서는 소수의 국가를 반영하거나 아예 고려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결혼이민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분석의 필요성을 제공했다는 것에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대부분 사회적 자본은 이주민에게 긍정적인 자원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양면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출신국별로 살펴볼 때 사회적 자본은 전반적으로 우울을 낮추고 삶의 만족도는 높아졌지만 일부 출신국은 우울을 높이고 삶의 만족도를 떨어트리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사회참여나 네트워크 자체에 부담이나 갈등, 긴장을 낳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필리핀과 태국 출신 결혼이민자를 제외한 모든 출신국의 결혼이민자가 배우자 모국어 능력이 우울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이들의 한국인 배우자를 중점으로 별도의 모국어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캄보디아의 경우 배우자 모국어 능력이 삶의 만족도에 부적인 매개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나 심층적으로 파악할 필요성을 가진다.

넷째, 결혼이민자의 출신국 특성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다중집단분석결과 출신국에 따라 우울과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상이하다는 것이 나타났다.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정책지원은 오히려 정신건강과 삶의 만족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결혼이민자의 출신국을 최대한 고려했지만 분석의 한계로써 모든 출신국가를 고려하지 못했다. 둘째,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일반적인 사회 조사이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과 삶의 만족도에 대해서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세분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자본과 삶의 만족도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셋째, 본 연구는 출신국 간의 차이만을 살펴보았으며 결과가 유사한 출신국별로 범주화하지는 못했다. 추후에는 더 나아가 각 집단의 문화배경을 고려한 정책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국가 유형화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순희. 2009. “이중언어교육의 필요성과 정책 제언.” 《국어교육학연구》 34: 57-115.
- 김경미. 2012.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연결망과 한국생활 만족도: 중국, 베트남, 일본 출신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5(2): 185-208.
- 김도희·이경은. 2010. “결혼이민여성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경로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5(2): 5-25.
- 김오남. 2007.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2(3): 47-73.
- 김인숙. 1995.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에 관한 비교연구: 빈곤여성과 중산층 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27: 67-89.
- 김영란. 2007. “이주여성노동자의 사회문화적 적응에 관한 경험적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46(1): 43-95.
- 김진희·박옥임. 2008. “농촌과 도시지역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가족갈등과 생활만족도 비교: 전라남도 지역을 중심으로.” 《농촌사회》 18(1): 127-160.
- 김현실·정영미. 2011.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 영향요인.” 《한국자료분석학》 13(5): 2417-2432.
- 배병렬. 2017. 『Amos 24 구조방정식모델링』 서울: 청람.
- 박경애·정해선. 2011. “결혼이민여성의 부부 의사소통, 부부 친밀감이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아동복지연구》 9(2): 59-84.
- 박미정·엄명용. 2009.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가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 14(2): 1-26.
- 박은희·주인주. 2012. “결혼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8(2): 29-54.
- 박희봉·이희창. 2005. “생활 만족에 미치는 영향 요인 비교 분석: 경제, 사회적요인인가? 사회자본 요인인가?” 《한국행정논집》 17(3): 709-728.
- 설동훈. 2009. “한국사회의 다문화 담론에 대한 성찰적 접근.” 『역사의 시각에서 본 ‘동아시아세계’의 아이덴티티와 다양성(I)』. 동북아역사재단 주최 국제학술회의자료집. 168-176.
- _____. 이계승. 2011. “여성 결혼이민자 부부의 결혼 만족도와 이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지역사회학》 13(1): 117-147.
- _____. 이혜경·조성남. 2006. 『이주여성 가족실태 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 방안연구』. 여성가족부.

- _____. 박경태·이란주. 2004. 『외국인 관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 우종필. 2016. 『우종필 교수의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서울: 한나래아카데미.
- 유석춘·장미혜·배영. 2002. “사회자본과 신뢰: 한국, 일본, 덴마크, 스웨덴 비교연구.” 《동서연구》 14(1): 101-135.
- 이민아. 2010. “이민 전·후의 연결망이 결혼이민자 여성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보건과 사회과학》 27: 31-60.
- _____. 2012. “사회적 연결망의 크기와 우울: U자형 관계와 대인신뢰의 조절효과.” 《한국사회학》 47(4): 171-200.
- 이선영. 2015. “결혼 이주 여성의 결혼 만족에 대한 부부 커뮤니케이션, 부부의 문화 적응 및 성 역할 인식의 영향.” 《한국언론학보》 59(6): 41-68.
- 이용균. 2007.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문화 네트워크의 특성: 보은과 양평을 사례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0(2): 35-51.
- 이흥재·박미경·차용진. 2017. “동남아시아 및 중국계 결혼이민여성의 동화적응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 다중집단 분석을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연구》 10(2): 193-218.
- 양순미. 2006. “농촌 국제결혼부부의 적응 및 생활실태에 대한 비교 분석: 중국, 일본, 필리핀 이주여성 부부 중심.” 《농촌사회》 16(2): 151-179.
- 장지혜. 2010. “여성 결혼이민자와 사회적 자본과 생활 만족도.” 《한국이민학》 1(2): 67-95.
- 정기선·김영혜·박경은·이은아·박지혜·이승애·이지혜. 2007. 『경기도내 국제결혼이주민 가족 실태조사 및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 조인주·현안나. 2012. “결혼이주여성의 우울 영향요인들의 구조적 관계 분석문화변용과 적응과정 이론을 중심으로.”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0(1): 177-206.
- 통계청. 2016. 『혼인통계 결과』. 통계청.
- 통계청. 2015.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통계정보 보고서』. 통계청.
- 한아름·김여진. 2012. “결혼이주여성의 사회활동, 문화적응스트레스 그리고 우울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33: 75-104.
- 현경자·김연수. 2011.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적응 측정도 개발연구.” 《보건사회연구》 31(4): 63-100.
- 홍두승·설동훈. 2012. 『사회조사분석』, 제3판. 다산출판사.
- 홍종명. 2012. “다문화 이중언어 교육을 위한 탐색적 연구: 결혼이민자 모국어 사용 양상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16(3): 279-302.

- Adler, Paul Simon, and Seok Woo Kwon, 2000. "Social Capital: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pp. 89-115 in *Knowledge and Social Capital: Foundations and Applications*, edited by Eric L. Lesser. Boston, MA: Butterworth-Heinemann.
- Amit, Karin. 2009. "Determinants of Life Satisfaction among Immigrants from Western Countries and from the FSU in Israel." *Social Indicators Research* 96(3): 515-534.
- Barry, Brian, and Greg L. Stewart. 1997. "Composition, Process, and Performance in Self-Managed Groups: The Role of Personality."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2(1): 62-78.
- Berry, John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46(1): 5-34.
- Bourdieu, Pierre. 1986. "The Forms of Capital." pp. 241-258 in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Sociology of Education*, edited by John G. Richardson. Westport, CT: Greenwood Press.
- Browne, Michael W., and Robert Cudeck. 1992.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Sociological Methods and Research* 21(2): 230-258.
- Burt, Ronald S. 1992. *Structural Holes: The Social Structure of Competi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ampbell, Angus. 1976. "Subjective Measures of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31(2): 117-124.
- Coleman, James S. 1990. *The Foundations of Social Theor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Diener, Edward F.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3): 42-575.
- Fukuyama, Francis. 1995.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 Free Press.
- García, Manuel F. Martínez, Manuel García Ramírez, and Isidro Maya Jariego. 2002. "Social Support and Locus of Control as Predictors of Psychological Well-Being in Moroccan and Peruvian Immigrant Women in Spain."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6(3): 287-310.
- George, Linda K. 1979. "The Happiness Syndrome: Methodological and Substantive Issues in the Study of Social-Psychological Well-being in Adulthood." *The Gerontologist* 19(2): 210-216.
- Gotlib, Ian H., and Constance L. Hammen. 1992. *Psychological Aspects of Depression*:

- Toward a Cognitive-Interpersonal Integration*. Chichester, UK: John Wiley.
- Joiner, Thomas E., Mark S. Alfano, and Gerald I. Metalsky. 1993. "Caught in the Crossfire: Depression, Self-Consistency, Self-Enhancement, and the Response of Other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2(2): 113-134.
- Kenny, David A. Kenny, and D. Betsy McCoach. 2003. "Effect of the Number of Variables on Measures of Fit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10(3): 333-351.
- Lin, Li-Hua, and Chich-Hsiu Hung. 2007. "Vietnamese Women Immigrants' Life Adaptation, Social Support, and Depression." *Journal of Nursing Research* 15(4): 243-254.
- Lin, Nan. 2001. *Social Capital: A Theory of Social Structure and Action*. Cambridge,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in, Nan, Xiaolan Ye, and Walter M. Ensel. 1999. "Social Support and Depressed Mood: A Structural Analysi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0(4): 344-359.
- OECD. 2000. *Human and Social Capital and Sustained Growth and Development: Reconciling New Economies and Societies — The Role of Human and Social Capital*. Paris: OECD.
- Neugarten, Bernice L., Robert J. Havighurst, and Sheldon S. Tobin. 1961. "The Measurement of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Gerontology* 16(2): 134-143.
- Putnam, Robert. 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_.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and Schuster.
- Portes, Alejandro. (ed.). 1995. *The Economic Sociology of Immigration: Essays on Networks, Ethnicity, and Entrepreneurship*.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_____. 1998. "Social Capital: Its Origins and Applications in Modern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24: 1-24.
- Stimpson, Jim P., Karl Eschbach, and M. Kristen Peek. 2007. "Effect of Immigrant Status on Risk of Depressive Symptoms Associated with Spouse's Chronic Conditions." *Journal of Immigrant and Minority Health* 9(1): 29-34.
- Vohra, Neharika, and John Adair. 2000. "Life Satisfaction of Indian Immigrants in Canada." *Psychology and Developing Societies* 12(2): 109-138.
- WHO. 2017. *Depression and Other Common Mental Disorders: Global Health*

Estimates. Geneva, Switzerland: World Health Organization.

Williams, Carolyn L., and John W. Berry 1991. "Primary Prevention of Acculturative Stress among Refugees: Application of Psychological Theory and Practice." *American Psychologist* 46(6): 632-641.

A Path Model of Life Satisfaction among Female Marriage Immigrants in Ethnicity: Social Capital and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Seon-Young In
Hyundai Research Institute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dentify the effects of social capital and a language proficiency on life satisfaction and the mediating effect of their depression. The study particularly focuses on social capital, attempted to find factors affecting their life satisfaction and depression. Furthermore, marriage immigrant groups have quite different characteristics in ethnicity. Therefore, after performing the analysis of the entire sample, each Marriage immigrant group will be analyzed in ethnicity. The data, the 2015 National Multicultural Family Survey, were examined by SPSS 22.0 and AMOS 23.0 in which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ath analysis and multi-group analysis was accomplished to identify ethnicity difference.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ly, social capital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among the marriage immigrants. In addition, depression was a mediator in the association of social capital and life satisfaction. Lastly, the results of multiple group analysis showed that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social capital,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were different in ethnicity. In conclusion, the study suggests the necessity of program management according to the cultural background of the marriage immigrant's country of origin. The results of multiple group analysis showed that factors affecting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differ in ethnicity. Consistent policy support can reduce the mental health and life satisfaction of married immigrants.

Keywords: immigrants, life satisfaction, social capital, depression, language proficiency, ethnicity

(2019. 1. 3. 접수; 2019. 2. 11. 수정; 2019. 3. 5. 채택)

부 록

- 부록 1. 한국이민학회 정관
- 부록 2. 한국이민학회 회장 선출에 관한 규정
- 부록 3. 한국이민학회 연구윤리규정
- 부록 4.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규
- 부록 5. 《한국이민학》 발간지침
- 부록 6. 원고 제출 및 집필 요강
- 부록 7. 한국이민학회 2019-2020년 임원 명단
- 부록 8. 《한국이민학》 편집위원회

한국이민학회 정관

제 정: 2007년 2월 2일
제1차 개정: 2009년 7월 1일
제2차 개정: 2010년 6월 14일
제3차 개정: 2013년 4월 1일
제4차 개정: 2018년 1월 15일

【 제1장 총칙 】

제1조 (명칭)

본 학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이민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 명칭은 Korea International Migration Studies Association (약칭: KIMSA)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국경을 넘는 인간의 이동에 따른 제반현상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학술활동을 활성화하고 국제학술교류를 촉진하여 인류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주소)

본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

제4조 (사업)

본 학회는 제2조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이민에 관한 연구
2. 국내 및 국제 학술발표회와 토론회 개최
3. 학회지 및 연구결과물의 간행
4. 국내외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

5. 기타 학회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

【 제2장 회원 】

제5조 (회원 구분 및 자격)

- ① 본 학회의 회원은 개인회원, 기관회원 및 도서관회원으로 구분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개인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고 본 학회에 가입한 자로 한다.
 1. 정회원은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이민과 관련된 분야를 강의하거나 연구에 종사하는 자로서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과정 중의 대학원생, 이민분야에 관심이 있는 법조인,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자로 한다.
 2. 준회원은 이민분야에 관심을 가진 석사과정의 대학원생으로 한다.
 3. 특별회원은 일반회원 또는 준회원이 아닌 자연인으로서 이민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부처, 공공기관, 국제기구 또는 민간기관에 종사하는 자 또는 학회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로서 이사회에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다만 특별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박사과정의 대학원생인 경우에는 정회원으로 본다.
- ③ 기관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 ④ 도서관회원은 본 학회가 발간하는 학회지와 연구결과물을 구독하고자 하는 도서관으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① 정회원은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총회에서 의결권을 갖는다.
- ② 회원은 학회지를 무상으로 배부 받는다.
- ③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학회가 주관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학회의 목적과 명예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회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제명 및 자격정지)

- ① 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일을 하였거나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 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②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 제3장 임원 】

제9조 (임원의 구분 및 임기)

- ① 본 학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4인 이내
 3. 총무이사 1인
 4. 편집이사 3인 이내
 5. 연구이사 3인 이내
 6. 감사 2인
 7. 기타 필요에 의해 이사로 선임되는 자.
- ②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회장이 전임회장의 유고로 승계한 경우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이면 승계한 잔여임기는 회장의 임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0조 (회장의 선출과 명예회장의 추대)

- ① 회장은 한국이민학회 회장 선출에 관한 별도의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선임한다.

제11조(기타 임원의 선출)

- ① 감사는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 ② 회장과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12조(임원의 권한과 의무)

-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법인의 이사장 및 총회, 이사회
의 의장이 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
하며, 1개월 이내에 차기 회장이 회장의 직을 승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③ 총무이사는 학회의 일반운영,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예산 및 결산, 법인 등록
및 변경, 기타 다른 상임이사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업무를 담당한다.
- ④ 편집이사는 학회지 및 기타 연구간행물 발간을 담당한다.
- ⑤ 연구이사는 정기학술대회의 기획 및 개최, 기타 학술활동을 담당한다.
- ⑥ 감사는 학회의 예산·결산과 사업을 감독한다.

【 제4장 조직 】

제13조 (총회)

- ① 본 학회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총회를 두며,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 ②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③ 정기총회는 매년 정기학술대회일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 정회원 20인 이상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 ④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의결한다.
 1. 정관의 제정 및 개정
 2. 회장과 감사의 선출
 3. 사업계획의 승인
 4. 결산의 승인
 5. 본 학회의 해산
 6. 기타 본 학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
- ⑤ 총회의 의결은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관의 개정
은 출석한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14조 (이사회)

- ① 이사회는 감사를 제외한 제9조 제1항의 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 ② 이사회는 의장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안
 - 2. 총회에 제출하기 위한 정관의 개정안
 - 3. 제5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정회원의 가입자격 인정
 - 4. 제8조에 의한 회원의 제명 및 자격정지
 - 5. 회원에 대한 포상
 - 6. 기타 총회에 제출하기 위한 안건의 심의 및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 ④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한 임원 과반수의 찬성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 (실무이사회)

- ① 총회와 이사회의 결의를 집행하고 학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실무이사회를 둘 수 있다.
- ② 실무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회장이 선임하는 실무이사로 구성하며,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 ③ 실무이사는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 ④ 실무이사회는 학회 운영을 위한 협의사항이 발생하거나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집행해야 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 ⑤ 실무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기획한다.
 - 1. 이사회 및 총회에 제출하기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안
 - 2. 이사회 및 총회에 제출하기 위한 정관의 개정안
 - 3. 회원의 회비
 - 4. 본 학회의 명의로 수행하는 연구수탁사업 등의 전체 사업금액 중 학회귀속분의 비율
 - 5. 기타 본 학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⑥ 실무이사회에서의 의결은 출석한 실무이사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6조(편집위원회)

- ① 본 학회의 학회지 및 연구결과물의 간행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편집위원

회를 둔다.

- ② 편집이사는 편집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은 편집이사 중 회장이 임명한다.
- ③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학회지 및 연구결과물의 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7조(연구회 및 연구자문위원회)

- ① 본 학회의 연구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공 또는 연구주제별 연구회를 둘 수 있다.
- ② 연구회의 운영은 연구이사가 담당한다.
- ③ 연구이사 및 연구회의 연구기획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④ 연구회와 연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5장 재정 】

제18조 (재산)

- ① 본 학회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 1. 회원이 납부한 회비
 - 2. 국가 기타 공공단체의 보조금
 - 3. 기부금 및 찬조금
 - 4. 사업에 따른 수입금
 - 5.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
 - 6. 본 학회의 기금
 - 7. 기타 수입
- ② 제5조의 회원 구분에 따른 회비의 금액은 실무이사회가 결정한다.

제19조 (재산의 관리)

- ① 본 학회 재산의 보존 및 관리는 회장이 관장한다.
- ② 회장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1. 재산의 처분, 임대, 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
2. 제4조 이외의 사업과 관련하여 본 학회가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 또는 본 학회의 권리 포기하는 행위(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기채(起債) 또는 금전차입(상임이사회가 정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차입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20조(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1조(재정보고)

회장은 결산 등 본 학회의 재정내역을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6장 해산 】

제22조 (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23조 (재산귀속)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잔여 재산을 국가 또는 본 학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한국이민학회 회장 선출에 관한 규정

제 정: 2017년 12월 8일

제1항 (목적)

이 규정은 한국이민학회 회장의 선출에 관한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항 (회장의 자격)

회장으로서의 피선거권은 선거 개시일 현재 정회원인 자에 한한다.

제3항 (회장의 선출)

(차기) 회장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1. 이사회에서 무기명으로 1인당 2인의 회장 후보를 추천하며 이메일이나 우편에 의한 추천을 포함하여 재적인원의 10%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최다 추천 순으로 4명 이내의 예비후보를 확정한다. 단, 이메일이나 우편에 의한 추천은 이사회 전일까지의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이메일이나 우편추천은 이사회에서 다른 추천과 함께 개봉한다. 또한 동수 득표의 경우에는 연장자 우선 원칙에 의해 예비후보를 확정하며, 예비후보가 1인일 경우에는 투표 없이 이를 후보로 확정하여 전임회장단에 추천한다.
2. 전임회장단회의에서 4인(이내)의 후보 중 1인을 (차기)회장으로 총회에 추천한다.
3. 총회는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전임회장단에서 추천한 (차기)회장을 선출한다.
4. 예비후보 선출시 득표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단, 전임회장단회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후보자의 득표수를 선거관리위원단장이 전임회장단회의에 구두로 보고할 수 있다.
5. 예비후보 또는 후보는 선거운동을 하지 아니한다.

제4항 (선거관리위원단의 구성 및 운영)

학회 총회일전에 회장이 단장을 맡고, 총무이사, 감사 1인이 위원인 선거관리위원단을 구성하며, 추천서 발송, 개표 등 선거관리에 필요한 활동을 한다. 또한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감사가 감시위원으로 활동한다.

제5항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은 한국이민학회 이사회에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한국이민학회 연구윤리규정

제 정: 2010년 6월 14일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이민학회(이하 ‘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한국이민학》(이하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 발표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학술지의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들에게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학회에 논문을 투고, 발표하는 모든 사람과 그 저작물, 그리고 학술지의 편집위원과 논문 심사위원들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적용범위) 우리 학회를 통해 투고, 발표되는 모든 논문은 이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윤리규정

제4조 본 학회에 논문을 투고하고 발표하는 모든 저자는 학회 정관에 천명된 목적의 달성과 관련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 본인의 학자적 양심을 따라 독창적인 논문을 작성·투고하며 본 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 (위반행위) 다음과 같은 행위는 학회의 윤리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 ① 논문의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등 관계법령의 규정과 사회 상규에 반하여 논문 출판의 윤리를 저버리는 행위 (여기서 “위조”는 존재하지 않

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변조”는 연구 재료나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나 연구내용 및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일정한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또는 아무 기여도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함).

- ② 전호에 규정된 위반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③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제6조 (편집위원의 윤리적 의무) 본 학회의 편집위원들은 다음과 같은 윤리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 ①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이나 나이, 소속 기관 또는 저자와의 개인적인 친분과 관계없이 오직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규정만을 근거로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 ②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지체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③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진다.
- ④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위원 이외의 사람에게 투고된 논문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 ⑤ 편집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학자적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 ⑥ 저자는 편집위원장에게 투고한 논문에 대해 특정한 인사를 심사위원으로부터 제외시켜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내용을 본 후 결정해야 한다.

제7조 (논문 심사위원의 윤리적 의무) 본 학회의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 심사를 위촉 받은 모든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윤리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 ① 모든 심사위원은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심사하여 심사 의견을 편집위원회에 보내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심사하기에 적

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에게 곧바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② 심사위원은 높은 수준의 학술적 기준을 적절하게 유지하면서 논문의 내용과 결과의 해석, 설명의 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은 자신의 학술적 신념이나 가정, 저자와의 개인적 친분 관계를 떠나 공정하게 심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③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에 보내는 심사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그 이유와 함께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 ④ 심사위원은 논문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심사를 위해 요구되는 특별한 조언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어서는 안 되며 그 내용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삼가야 한다. 다른 사람의 조언을 받아서 심사 의견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편집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논문이 학술지를 통해 발표되기 전에는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도 안 된다.
- ⑤ 심사위원은 논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존의 연구가 정확하게 인용되어 있는가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논문의 내용이 다른 논문과 같거나 매우 유사할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상세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8조 (논문 저자의 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전조의 윤리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논문 저자에 대해서는 위반 내용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① 5년 이하의 투고 금지
- ② 논문이 학술지에 이미 발표되었을 경우 인터넷에서 논문 삭제
- ③ 학회 홈페이지 및 위반 사실이 확인된 이후 발간되는 첫 학술지에 위반 사실 공시
- ④ 윤리규정을 위반한 논문 저자의 소속기관에 위반 사실 통보

제9조 (편집위원이나 심사위원의 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전조의 윤리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편집위원이나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위반 내용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① 재발 방지를 위한 경고

- ② 편집위원이나 심사위원으로부터 해촉 및 재위촉 영구 금지
- ③ 학회 홈페이지 및 위반 사실이 확인된 이후 발간되는 첫 학술지에 위반 사실 공시
- ④ 윤리규정을 위반한 편집위원이나 심사위원의 소속기관에 위반 사실 통보

제10조 (이의 신청) 당해자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학회는 이를 판단할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 심의하여야 한다.

제11조 (연구윤리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는 학회 회원 중에서 5명으로 구성한다.

제12조 기타 본 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사회상규에 따라 판단한다.

제13조 본 규정은 2010년 6월 14일자로 제정하여 시행한다.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규

제 정: 2008년 8월 1일
제1차 개정: 2010년 6월 14일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한국이민학회(이하 학회라 칭함) 정관 제16조에 규정된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본 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부위원장 및 1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 (편집위원의 임기 및 선임)

- ① 편집위원장은 회장단의 협의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하되,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②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하되, 전체 편집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동시에 바뀌지 않도록 한다.
- ③ 편집위원장과 편집부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업무) 본 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학회의 공식 학술지 《한국이민학》 원고의 접수 및 게재여부 심사
2. 《한국이민학》의 편집 및 출간
3. 기타 학술서적의 편집 및 출판

제5조 (운영)

- ① 본 위원회는 《한국이민학》에 투고된 논문들의 게재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

논문의 평가자를 선임·위촉하고 평가자의 논평을 근거로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② 《한국이민학》에 게재할 연구논문 등의 투고접수, 심사, 편집 및 발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규정에 따른다.
- ③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편집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④ 편집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⑤ 편집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본 위원회가 편성하여 한국이민학회 회장에게 청구한다.
- ⑥ 편집부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경우 편집위원장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다.
- ⑦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간사를 둘 수 있으며, 편집간사에게는 소정의 수당을 지급한다.

부칙

제1조 이 내규의 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조 이 내규는 총회의 승인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한국이민학》 발간지침

제 정: 2008년 8월 1일
제1차 개정: 2010년 6월 14일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이민학회의 공식 학술지 《한국이민학》(*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Migration*)에 게재할 연구논문 등의 투고접수, 심사, 편집 및 발간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한국이민학》의 발간주기)

- ① 《한국이민학》은 연간 2회(6월 30일, 12월 31일) 발간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호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한국이민학》의 발간번호는 제○권 제○호로 한다. 《한국이민학》의 발간연도에 따라 “제○권”의 숫자가 순서대로 부여되며, 같은 연도에 발행한 《한국이민학》의 순서에 따라 “제○호”가 부여된다.

제3조 (편집위원회)

- ① 한국이민학회 정관 제16조에 규정된 편집위원회가 《한국이민학》에 게재할 연구논문 등의 투고접수, 심사, 편집 및 발간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맡는다.
- ②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편집부위원장 및 20명 이하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편집위원장은 정관 제16조 제2항에 의거 편집이사 중 회장이 임명하며, 편집부위원장과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4조 (논문투고)

- ① 《한국이민학》에 게재할 논문의 주제는 한국 및 세계의 이민 관련 이론적·경험적 연구여야 하며, 논문투고자의 자격은 회원으로 제한한다.

- ② 논문의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며, 제출된 논문은 국내외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현재 게재를 심의 중이어서는 안 된다. 단, 외국어로 작성되어 저명 국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로 번역하여 실을 수 있다.
- ③ 논문 제출 시 원고는 워드프로세서(한글 또는 MS Word)로 작성하여 kimsa4info@gmail.com으로 투고신청서와 함께 전자메일로 송부한다. 투고신청서는 본 학회 홈페이지(<http://www.kimanet.org>)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후 원고와 함께 송부한다.
- ④ 제출된 논문은 오·탈자의 수정을 제외한 내용상의 편집과 수정을 하지 않고 게재함을 원칙으로 하며, 논문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논문투고자가 진다.
- ⑤ 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 ⑥ 저자는 제1저자를 제일 처음 명기하며, 공동저자는 논문작성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순서대로 기재한다. 두 사람 이상의 복수 저자일 경우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를 표기한다.
- ⑦ 기타 논문의 투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조 (심사위원의 선정 및 심사의뢰)

- ① 논문이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은 편집부위원장 및 해당 전공의 편집위원과 협의하여, 논문의 원고를 해당분야의 편집위원에게 할당하고, 심사위원을 추천하도록 한다.
- ② 해당분야 편집위원은 할당된 논문과 관련하여 연구실적과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추천한다.
- ③ 편집위원장은 해당분야 편집위원이 추천한 심사위원 중 3인을 선정하여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단, 편집위원회가 소집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 ④ 심사위원은 투고자의 출신학교, 소속기관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 (논문의 심사)

- ① 논문의 심사를 의뢰 받은 심사위원은 “게재가”, “부분수정”, “근본수정”, “게재불가” 중 하나의 심사결과와 관련 의견을 작성하여, 의뢰 받은 기간(통상 2주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분수정이라 함은 수정 후 게재가 타당하다는 판단을 의미하고, 근본수정이라 함은 수정 후 재심사가 타당하다는 판단을 의미한다.

- ② 위촉받은 심사위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3주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해당분야 편집위원과 협의하여 다른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 ③ 논문투고자와 심사위원은 각자에 대해 익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 (논문심사의 기준)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논문을 심사하여야 한다.

1. 논문의 체계와 완성도
2. 연구내용의 독창성과 창의성
3. 연구내용의 학술적·정책적 기여도
4. 연구방법의 적합성
5. 기타 편집위원회가 정한 사항

제8조 (논문게재의 판정)

- ① 논문게재의 판정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게재가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사	게재불가
가, 가, 가 가, 가, 부분 가, 가, 근본 가, 가, 부	가, 부분, 부분 가, 부분, 근본 부분, 부분, 부분 부분, 부분, 근본	가, 부분, 부 가, 근본, 근본 가, 근본, 부 부분, 부분, 부 부분, 근본, 근본 부분, 근본, 부 근본, 근본, 근본 근본, 근본, 부	가, 부, 부 부분, 부, 부 근본, 부, 부 부, 부, 부

※ 가: 게재가, 부분: 부분수정, 근본: 근본수정, 부: 게재불가

- ② 해당분야 편집위원은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제1항의 기준에 따라 논문 게재 여부를 판정하고 이를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제9조 (수정후게재 판정 투고논문의 게재)

-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수정후게재”의 판정을 통보받은 논문투고자는 기한 내에 수정·보완된 논문과 수정 요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투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논문투고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② 수정·보완된 논문의 최종 게재 여부는 해당 편집위원의 판단을 기초로 하여 편집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단, 편집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편집위원의 판단을 기초로 하여 편집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 (재심 판정 투고논문의 게재)

-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재심”의 판정을 통보받은 논문투고자는 기한 내에 수정·보완된 논문과 수정 요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투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논문투고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동 규정은 여러분의 지적에 따라 삭제)
- ② 수정·보완된 논문의 재심은 초심에서 부분수정, 근본수정 또는 부의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들에게 맡긴다.
- ③ 재심을 의뢰 받은 심사위원은 의뢰 받은 기간(통상 1주일) 이내에 “게재가” 또는 “게재불가”의 재심 결과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④ 수정·보완된 논문의 재심 결과, 초심에서 “게재가”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을 포함하여 심사위원의 2인 이상이 “게재가”로 평가한 경우에는 논문 게재를 확정한다.

제11조 (게재불가 판정 논문의 심사 재신청)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원고는 논문의 내용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고 “재신청”임을 명기하여 다시 기고할 수 있으며, 이때 3인의 심사위원 중 1인은 당초의 심사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한 위원으로 한다.

제12조 (이의신청 및 재심사)

- ① 논문투고자는 심사 과정이나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상세한 사유를 첨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편집위원회는 이의 제기 사유를 검토한 후 재심사 여부를 결정한다.
- ③ 재심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그 사유를 이의 제기자에게 통보한다.
- ④ 재심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제5조 이하에 의거, 새로운 투고논문과 동일한 심사과정을 거치게 한다. 이때 심사위원은 원래 심사위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선정한다.

제13조 (표절 지적의 처리)

- ① 편집위원회는 표절이란 의견이 제시되고 표절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심사를 중단한다.
- ② 이때 편집위원회는 표절 지적 내용과 관련 자료를 논문투고자에게 통보한다.
- ③ 논문투고자는 다툼이 해결되었음을 증빙하는 내용의 자료를 첨부하여 재투고할 수 있다.

제14조 (비밀유지)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의 심사 및 게재와 논문투고자에 관한 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5조 (판권 등)

- ① 《한국이민학》에 게재된 논문의 판권은 한국이민학회에 귀속한다.
- ② 논문투고자는 게재된 논문을 다른 학술지 또는 발간물 등에 게재하거나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이민학》에 게재된 논문임을 밝혀야 한다.

제16조 (논문게재예정증명 등) 논문게재예정증명 또는 논문게재증명은 각각 논문의 게재가 확정된 후 또는 《한국이민학》이 발간된 후 논문투고자의 요청에 의해 발급한다.

제17조 (보칙) 《한국이민학》의 발간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의 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2조 이 규정은 2010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원고 제출 및 집필 요강

원고 제출 및 게재

1. 《한국이민학》은 한국 및 세계 이민문제와 관련된 이론적·경험적 연구들을 싣고 있다.
2. 《한국이민학》에 게재되는 논문은 독창성을 가진 것으로서 미발표된 것이어야 한다. 단, 국제 저명 학술지에 외국어로 발표된 논문은 한국어로 번역하여 게재할 수 있다.
3. 《한국이민학》은 수시로 논문을 접수한다. 《한국이민학》에 투고를 원하는 사람은 원고를 워드프로세서(한글 또는 MS Word)로 작성하여 ‘한국이민학회 사무국’(kimsa4info@gmail.com)으로 투고신청서와 함께 전자메일로 송부하여야 한다. 투고신청서는 본 학회 홈페이지(<http://www.kimanet.org>)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후 원고와 함께 송부한다.
4. 제출원고는 한국어로 씌어진 것으로, 다음 원고 작성지침에 따라야 한다.
5. 접수된 논문은 심사위원 3인 이상의 엄격한 심사를 거친다.
6. 게재 결정 이후 투고자는 원고를 수정한 후, 최종원고를 담은 파일을 전자우편으로 제출한다.

원고 작성지침

1. 원고 논문은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A4 용지에 단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2. 원고의 분량은 각주, 참고문헌, 도표 등을 포함하여 25매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3. 연구단편(research notes)은 10매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4. 원고는 국문으로 제목표지(논문제목·저자이름·요약문·핵심단어), 본문, 각주, 참고문헌, 표, 그림, 부록, 저자소개의 순으로 작성한다. 아울러, 영문으로 논문제목, 저자이름, 요약문(English Abstract), 핵심단어(Key Words)를 작성하여 첨부한다.
5. 원고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만 한자를 괄호 속에

함께 쓰도록 하고, 기타의 외래어는 첫 번에 한하여 한글 원문 뒤에 괄호 속에 함께 쓴다.

6. 원고의 제목표지에는 논문의 제목, 저자의 이름, 소속,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저자가 두 사람 이상인 공동연구의 경우 중간점(·)을 사용하여 옆으로 나란히 기재한다. 감사의 글, 연구비 지원기관, 교신저자 등은 *표를 하여 같은 면에 각주로 기재한다.
7. 논문의 국문 핵심단어와 영문 핵심단어는 3-5개 제시한다.
8. 국문과 영문 요약문(연구단편 포함)은 200자 원고지 5장 또는 A4 용지 단면 1/2장 이내로 작성한다.
9. 본문에서는 논문의 제목을 본문의 첫 장에 기재한다. 논문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논문 심사위원이 저자를 알아볼 수 있는 서술은 삼가야 한다. 세부적인 본문 서술 요령은 다음과 같다.
 - 1) 본문은 내용의 구성을 명료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3단계 정도의 소제목을 추천한다. 소제목은 I., 1., 1), (1), ① 형식으로 단계적으로 구성한다.
 - 2) 저술 인용방식은 저자의 이름과 저서의 출판 연도를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인용 페이지를 기재하도록 한다. 같은 저술을 되풀이 인용할 때에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한다. 구체적인 방식은 다음과 같다.
 - (1) 저자의 이름이 본문에 언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출판 연도를 괄호 안에 제시하고 본문에 언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름과 출판 연도를 모두 괄호 안에 제시한다.
 예 1, “..... 설동훈(1999: 10)”; 예 2, “..... (설동훈, 1999: 10)”
 - (2) 저자의 이름이 외래어인 경우, 한글로 쓰고 원명은 괄호 속에 담는다.
 예, “..... 그라노베테(Granovetter, 1985)”
 - (3) 2인 공동저술일 경우, 두 사람의 이름을 모두 제시한다.
 예, “..... (유길상·이규용, 2001)”
 - (4) 3인 이상의 공동저술일 경우 첫 번째 인용에서는 모든 저자의 이름을 제시하고 그 이후부터는 “외”를 사용한다.
 예, “..... (이규용·유길상·이해춘·설동훈·박성재, 2007)”과 그 이후 “..... (이규용 외, 2007)”

(5) 출판 예정인 저술을 인용할 때는 “출판예정”(또는 “forthcoming”)을 부기하고, 미간행물일 경우에는 “미간행”(또는 “unpublished”)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예, “…… (Gereffi, Spener and Bair, 2002 forthcoming)” 또는 “…… (외국 인노동자대책협의회, 2000 미간행)”

10. 참고문헌은 본문에 인용 또는 언급된 것으로 제한한다. 한국어 문헌은 저자 이름의 가나다 순으로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 외래어 문헌을 알파벳 순으로 제시한다. 단, 중국어 및 일본어 저자명은 괄호 속에 영문 또는 한글 표기를 한다. 다음은 참고문헌 작성 원칙에 따른 예다.

1) 도서

설동훈. 1999.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학교출판부.

유길상·이규용. 2001.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이규용·유길상·이해춘·설동훈·박성재. 2007. 『외국인력 노동시장 분석 및 중장기 관리체계 개선 방향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Lin, Nan. 2002. *Social Capital: A Theory of Social Structure and Ac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Cornelius, Wayne A., Takeyuki Tsuda, Philip L. Martin, and James F. Hollifield (eds.). 2004. *Controlling Immigration: A Global Perspective*, 2nd Edition.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Gereffi, Gary, David Spener, and Jennifer Bair (eds.). 2002 (forthcoming). *Free Trade and Uneven Development: The North American Apparel Industry After NAFTA*. Philadelphia, PA: Temple University Press.

2) 학술지 게재 논문

박경태. 2001. “사회적 자본으로서 NGO의 역할과 아시아 이주노동자 문제: 필리핀과 홍콩의 NGO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52(겨울): 184-205.

설동훈·김윤택. 2004. “대만의 외국인노동자 고용관리체계.” 《중소연구》 28(3): 69-117.

이혜경·정기선·이정환·설동훈. 2002. “국내외 한국기업의 외국인력 관리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식 관리방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6(3): 47-77.

Granovetter, Mark. 1985. “Economic Action and Social Structure: The Problem of Embeddednes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1(3): 481-510.

Brown, Jacqueline Johnson, and Peter H. Reingen. 1987. “Social Ties and Word-of-Mouth Referral Behavior.”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4: 350-362.

3) 단행본 수록 논문

- 이철우. 2004. “피로써 구별되는 국민들: 혼혈인과 한국사회.” 정인섭 편, 『사회적 차별과 법의 지배』. 박영사. pp. 233-261.
- 町村敬志(마치무라 타카시). 1992. “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と世界都市形成.” 梶田孝道 編, 『國際社會學: 國家を超える現象をどうとらえるか』. 名古屋: 名古屋大學出版會. pp. 114-133.
- 森田桐郎(Morita, Kirirora). 1987. “資本主義の世界的展開と國際勞働力移動.” 森田桐郎 編, 『國際勞働力移動』.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pp. 1-54.
- Bourdieu, Pierre. 1986. “The Forms of Capital.” Pp. 241-258 in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edited by John G. Richardson. Westport, CT: Greenwood Press.

4) 번역도서

- 伊東順子(Ito, Junko). 2001. 『病としての韓國ナショナリズム』. 東京: 洋泉社. (김혜숙 역. 2002. 『한국인은 좋아도 한국민족은 싫다』. 개마고원).
- Castells, Manuel. 1989. *The Informational City: Information Technology, Economic Restructuring, and the Urban-Regional Process*. Cambridge, MA: Basil Blackwell. (최병두 역. 2001. 『정보도시: 정보기술의 정치경제학』. 한울).
- Weber, Max. 1946. *From Max Weber: Essays in Sociology*, translated and edited by Hans H. Gerth and C. Wright Mill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5) 번역논문

- Weber, Max. 1893. “Die landliche Arbeitsverfassung.” *Schriften des Sozialpolitik* 58: 62-86. (임영일·차명수·이상률 역. 1991. “농업노동제도.” 『막스 베버 선집』. 까치. pp. 289-314).
- Weber, Max. 1946[1919]. “Politics as a Vocation.” Pp. 77-128 in *From Max Weber: Essays in Sociology*, translated and edited by Hans H. Gerth and C. Wright Mill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6) 미간행 학위논문

- 최홍엽. 1997.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법상 지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미간행).
- Lee, Young Hwan. 1991. “The Effects of Individual and Structural Characteristics on Labor Market Outcomes: A Case Study of Korea.”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Department of Sociology, Graduate School, Stanford University.

7) 학술회의 발표논문과 미간행 자료

- 설동훈. 2006. “이주노동자 자녀의 권리와 생활실태.” 『한국아동권리학회 2006년 춘계학술대회: 아동 소외의 현장 — 권리보호를 위한 대책』. 한국아동권리학회. pp. 54-81.
(숙명여자대학교 제2창학관 켄마홀, 2006·5·19)
-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2000.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인권백서: 인권침해의 현장보고』.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미간행).
- Schrecker, Ted. 1996. “The Borderless World and the Walled City: Metaphors for North American Social and Economic Life in the Twenty-First Century.” Paper Presented at a workshop at the Sustainable Development Research Institute, Vancouver, BC, Canada, March 1996. (Unpublished).

8) 인터넷 자료

- 서울특별시. 2001. 『서울 거주 외국인에 대한 여론조사』. (<http://www.metro.seoul.kr/kor2000/research/total/down/11/11-12.pdf>에서 가용. 인터넷; 2002년 7월 31일 접속).
- U.S. Department of State. 2001.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2001*. (Available from <http://www.state.gov/documents/organization/4107.pdf>. Internet; accessed February 7, 2002).
- ABCNEWS. 1998. “Women Forced to Work: Forced Abortions Are Conducted on U.S. Territory.” ABC News World Headlines, April 1, 1998. (Available from <http://www.abcnews.com/sections/world/DailyNews/saipan0331.html>. Internet; accessed March 25, 1998).
- 9) 동일 저자의 같은 해 저술
- 설동훈. 2002a. “국내 재중동포 노동자: 재외동포인가, 외국인인가?” 《동향과 전망》 52 (봄): 200-223.
- _____. 2002b.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현대판 노예인가, 외국인 용병인가?” 《당대비평》 6(1): 53-68.
- Petras, Elizabeth McLean. 1980a. “The Role of National Boundaries in a Cross-National Labour Market.”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4(2): 157-195.
- _____. 1980b. “Towards a Theory of International Migration: The New Division of Labor.” Pp. 439-449 in *Sourcebook on the New Immigration: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dited by Roy Simon Bryce-Laporte. New Burnswick, NJ: Transaction Books.

11. 표와 그림은 별지에 작성하고, 제목은 표와 그림의 위에 적는다. 주는 “주:”라고 시작하고, 출처는 “자료:”로 시작하여 표와 그림의 아래에 적는다.
12. 이 요강에 미비된 기타 사항은 본 학회 편집위원회에서 발행한 《한국이민학》 제6권 제2호의 관례에 따른다.
13. 원고 작성에 대한 문의처
 ☎ 24341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 강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송영훈 교수 연구실 (사회과학대학 203호) 내 《한국이민학》 편집위원회
 전자우편: kimsa4info@gmail.com
 전화: (033) 250-6841; (063) 270-3586

한국이민학회 2019-2020년 임원 명단

회 장	설동훈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부 회 장	한건수 (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김현미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이승미 (우석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이윤석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총 무 이 사	이병하 (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편 집 이 사	송영훈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천웅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김철호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 구 이 사	신지원 (전남대학교 사회학과)	이정은 (창원대학교 사회학과)
	김현식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국 제 이 사	최슬기 (KDI국제정책대학원)	최서리 (IOM이민정책연구원)
	박 우 (한성대학교 교양교직학부)	
학 술 이 사	이민아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한준성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송영호 (IOM이민정책연구원)	
기 획 이 사	이충훈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전대성 (전주대학교 행정학과)
	이창원 (IOM이민정책연구원)	
사 업 이 사	고재훈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비상임이사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인력개발학과)	이혜경 (배재대학교 공공인재학부)
	한경구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이철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기선 (IOM이민정책연구원)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강동관 (IOM이민정책연구원)	윤인진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이진영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최홍엽 (조선대학교 법학과)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강동우 (한국노동연구원)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김혜순 (계명대학교 사회학과)	문경희 (창원대학교 국제관계학과)
	박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수베디 (한남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전공)
	육주원 (경북대학교 사회학과)	조세현 (한국행정연구원)
	조영희 (IOM이민정책연구원)	
감 사	김석호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한승미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한국이민학》 제6권 제2호 (2019)

인 쇄 일: 2019년 3월 30일

발 행 일: 2019년 3월 31일

발 행 처: 사단법인 한국이민학회

발 행 인: 설 동 훈

사 무 국: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인문사회관 630호 ☎ 54896

전 화: (063)270-3586

전자우편: kimsa4info@gmail.com

홈페이지: www.kimanet.org

인 쇄 처: 온누리

주 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삼송3길 42 ☎ 54899

전 화: (063) 254-5311

전자우편: un5311@hanmail.net

ISSN 2093-6044